

와자

정답친해



윤리와 사상

I 동양 윤리 사상

01 / 도덕적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14쪽

01 (1) ㄱ (2) ㄷ (3) ㄴ **02** (1) ㉠ (2) ㉡ (3) ㉢ **03** (1) 기질지성
(2) 심즉리 **04** 주희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5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충(忠)과 서(恕)를 제시하였다. 충은 가식과 사심 없이 마음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고, 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바로 알기] ①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부모에 대한 효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말한다. ③ 정명은 각자가 맡은 직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집의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⑤ 구방심은 본래의 선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06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의 입장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갖추고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에게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네 가지 선한 마음[四端]이 주어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고자의 성무선악설의 입장이다. ③, ④, ⑤ 순자의 성악설의 입장이다.

07 예(禮)에 대한 순자의 입장

순자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지녔지만 선을 판단하고 예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예(禮)는 성왕이 마련한 제도적 규범이자 객관적 기준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사회 규범과 도덕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④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를 바탕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선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08 격물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주희는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왕수인은 격물을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바로 알기] ① 양지는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 앎이자 선천적인 도덕적 능력을 의미한다. ② 거경은 항상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④ 인욕은 인간의 사적인 욕심과 욕망을 의미한다. ⑤ 사단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네 가지 선한 마음을 의미한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15~017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① **05** ①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② **11** ③ **12** ⑤

01 인(仁)에 대한 공자의 관점

제시된 글은 공자의 극기복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사스러운 욕망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하는 극기복례를 통해 인(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인이 내면적 도덕성을 의미한다면, 예는 외면적 사회 규범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ㄱ. 공자가 제시한 인은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별적이고 단계적인 사랑에 해당한다. ㄴ. 집의와 구방심은 맹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에 해당한다.

02 맹자의 수양 방법

맹자는 집의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인 대장부(大丈夫)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공자의 입장이다. ③ 주희의 선지후행의 관점에 해당한다. ④ 맹자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⑤ 순자의 입장이다.

03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의 입장

(가)는 맹자의 입장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식을 잃은 시민에게 선행을 실천한 (나) 사례에 대해 인간에게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맹자는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강력한 형벌을 통해 사회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은 한비자의 입장에 가깝다. ②, ④ 순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예를 통해 인위적으로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고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04 공자와 맹자의 정치 사상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공자는 백성을 법제나 형벌보다는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리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맹자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항산)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도덕적 본성(항심)을 보존할 것을 주장하고, 왕도 정치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저버리고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05 예(禮)에 대한 순자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가 말하는 예(禮)는

성인(聖人)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배워 실천할 수 있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순자의 관점에서 예는 백성들이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성인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만든 것이다.

06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四端)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실마리이며, 이를 확충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악한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 예(禮)를 배워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순자의 입장이다. ㄴ. 맹자의 입장이다.

◆ 미전 꼭 알기!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인간의 본성은 선함 + 불인인지심과 사단 + 선한 본성의 확충 → **성선설(맹자)**
- 인간의 본성은 악함 + 이기심과 욕구에 따른 감정 + 악한 본성의 교화 → **성악설(순자)**
-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정해지지 않음 + 후천적 환경과 선택 + 주변 환경과 교육 등 후천적 요인의 중요성 → **성무선악설(고자)**

07 인간 본성에 대한 고자와 맹자의 입장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성무선악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고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사람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차마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는 ‘불인인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② 고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도덕성을 타고났다고 보지 않았다.

08 주희의 이기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세계의 근원인 이(理)를 본성으로 부여받은 본연지성은 순선한 반면, 기질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주희는 원리와 재료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와 기가 뒤섞일 수 없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을 주장하였다. ② 기는 만물을 형성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재료로서, 형체가 있기에 감각을 통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주희는 개별 사물의 이치와 마음의 천리의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⑤ 왕수인의 입장이다.

◆ 미전 꼭 알기!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

- 형이상적 존재 + 만물의 존재 원리이자 도덕 법칙 + 형체가 없음 + 감각으로 확인 불가 → **이(理)**
- 형이하적 존재 + 만물의 구성 재료이자 이를 담는 그릇 + 형체가 있음 + 감각으로 확인 가능 → **기(氣)**

09 왕수인의 양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그는 도덕 법칙으로서의 이치가 마음을 떠나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강조하였다. 이때 양지는 선과 악을 즉각적으로 가려내고 이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수인은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에 따르기만 한다면 이론적인 학습 없이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도덕적 지식[知]이 도덕적 실천[行]에 앞선다는 선지후행은 주희의 입장이다. 왕수인은 앎과 행함이 본래 하나이며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ㄴ. 타고난 본성이 악하므로 이를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10 주희의 성즉리설과 왕수인의 심즉리설

자료 분석

주희는 하늘이 부여한 이 그 자체로서의 본성이 본연지성이며, 본연지성은 사덕을 지니므로 순선하다고 보았어.

갑: 본성[性]이 곧 이치[理]입니다. 천하의 이치는 그 연유하는 **주희** 바를 추적해 보면 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본성에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자연스럽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을: 마음[心]이 곧 이(理)입니다. 천하에 마음 밖의 일이 있고, **왕수인**은 밖의 이치가 있었습니까? 부모에게서 효도[孝]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에게서 충성[忠]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이입니다. **왕수인은 마음 밖에 어떤 이치도 없다고 주장하였어.**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성즉리설을 주장한 주희는 하늘이 부여한 이(理) 그 자체로서의 본성을 본연지성으로 보았고, 본연지성이 기질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기질지성이라고 간주하였다. 본연지성은 사덕을 지니므로 순선하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과 불선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심즉리설을 주장한 왕수인은 마음 밖에 별도의 이치와 사물이 없다고 보고, 외적인 사물의 이치 탐구가 아니라 주체의 내적인 도덕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왕수인의 입장이다. ③ 왕수인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양지를 타고난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바탕으로 내적인 도덕성을 회복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주희만의 입장에 해당한다.

◆ 미전 꼭 알기! 성즉리설과 심즉리설

- 인간의 본성이 이치 + 외적 탐구 중시 + 선지후행 → **성즉리설(주희)**
- 인간의 마음이 이치 + 양지의 실현 중시 + 지행합일 → **심즉리설(왕수인)**

11 왕수인의 치양지

가상 편지는 왕수인의 입장이다. 왕수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양지를 지니고 있다. 그는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온전하게 하여 양지가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면 도덕 법칙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양지를 확충하고 실천하는 치양지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왕수인은 마음 밖에 이치가 없으므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② 왕수인은 마음속 양지를 실현하여 도덕적 삶과 실천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④ 왕수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양지를 본래 갖추고 있으므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소수에게만 주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⑤ 앎이 행함에 앞선다고 본 것은 주희의 입장이며, 왕수인은 앎과 행함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12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의 해석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에 따르면 앎을 지극히 하는 치지(致知)에 이르기 위해 사물에 깃들어 있는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주희에게 치지란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이다. ②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는 순서상으로 앎이 먼저이고 행함은 그 후라고 보았다. ③ 왕수인은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격물을 통해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지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④ 주희는 모든 사물에 이치(理)가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18쪽

01 주제: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

예시 답안 맹자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근거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인간을 본래적으로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맹자와 순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맹자와 순자 중 한 사상가의 입장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성리학의 이(理)와 기(氣)

예시 답안 성리학에 따르면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된 것으로, 이는 만물의 존재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형성하여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재료이다.

채점 기준	
상	성리학에서 제시한 이와 기의 의미를 각각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이와 기의 의미 중 한 가지만 간단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앎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1) **답** 갑: 주희, 을: 왕수인
(2) **예시 답안** 주희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참된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지후행을 강조하였다. 왕수인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양지가 주어져 있으므로 실제에서 벗어난 공부라 아니라 마음의 양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앎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별개가 아니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04 정답친해

채점 기준

상	주희와 왕수인의 관점에서 앎과 실천의 관계를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주희와 왕수인의 관점에서 앎과 실천의 관계를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주희와 왕수인 중 한 사상가의 관점에서만 앎과 실천의 관계를 서술한 경우

04 주제: 맹자의 왕도 정치

(1) **답** 왕도
(2) **예시 답안** 맹자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맹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인 향산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인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맹자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향산, 향심'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맹자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향산, 향심'을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5 주제: 주희의 수양법

예시 답안 제시된 대화 속 스승은 주희이다. 주희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존천리거인욕'의 수양법과, 양심을 보존하고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마음을 잘 살피는 '존양성찰'의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대화 속 스승이 주희임을 알고, 주희가 제시한 수양법을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주희가 제시한 수양법을 한 가지만 간단히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19쪽

01 ③ 02 ①

01 인간 본성에 대한 순자와 맹자의 입장

자료 분석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한 욕구에 따른 감정을 지닌 존재야.

갑: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으며 피곤하면 쉬고
순자: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자식이 어버이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모두 본성에 어긋난다.
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잘못을 맹자: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핵심〕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네 가지 선한 마음을 사단이라고 해. 맹자는 사단이라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인간에게 사덕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어.

값은 순자, 음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으나, 마음의 인지 능력을 통해 선을 알고 도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이 성선의 근거로 사단을 제시하였다. 순자와 맹자는 모두 인간은 수양을 통해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이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순자는 하늘과 인간의 일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고,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ㄴ.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양능을 지니고 태어난다.

02 앎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자료 분석

왕수인은 앎과 행동이 본래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앎**이란 행동의 본의이며 행동이란 앎의 공부이다. **앎**이란 행동의 시작이며, 행동이란 앎의 완성인 것이다. 만약 무언을 깨달았을 적에 오직 한 가지 앎만을 말하지만 이미 스스로 행동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행동만을 말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앎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음: 지(知)와 행(行)의 공부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함께 나아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의 두 발이 번갈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점차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주희는 앎과 행동이 서로 의존하며 함께 나아가는 지행병진을 주장하였다. 이는 개념적으로 앎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해.

값은 왕수인, 음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치지를 마음속의 양지를 개별적인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궁리를 통한 지식의 탐구보다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반면 주희는 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마음속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구를 제거하는 ‘존천리거인욕’의 수양법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ㄴ. B에는 왕수인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본래 누구나 온전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사욕을 제거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ㄹ. C에는 주희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주희는 앎이 순서상 실천에 앞선다고 보았지만, 중요도 면에서는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

주희	• 선지후행(先知後行): 앎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름 •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에 나아가 그 속에 담긴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지식을 지극히 함
왕수인	• 지행합일(知行合一): 앎과 행동은 본래 하나임 • 격물치지(格物致知):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마음의 본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 치지는 양지가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 즉 치양지(致良知)

02 진정한 평화, 영원한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22쪽

01 유무상생 02 (1) ㄷ (2) ㄴ (3) ㄱ 03 (1) ○ (2) × (3) ○
04 (1) 제물 (2) 소국과민 05 ② 06 ④ 07 ③ 08 ③

03 장자의 몰아일체

(2) 장자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보았다.

05 도(道)의 특징

도가 사상에 따르면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자연 만물을 생성하고 운행하게 하는 원리이며, 언어와 감각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바로 알기] ②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道)란 인간이 만든 도덕규범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에 해당한다.

06 도가의 무위

노자는 유교의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 윤리를 비판하고 도에 따라 인위적 행위를 하지 않는 무위를 강조하였다. 무위지치는 통치자가 인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백성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다스리는 것이다.

[바로 알기] ①, ②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으로, 심재는 마음에 있는 욕구를 씻어 내어 마음을 비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좌망은 육체를 잊고 감각 작용과 분별적 지식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③ 인위는 무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교 사상이 순자는 인위를 일으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격물은 주희가 제시한 수양 방법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세계의 참모습을 밝게 아는 것이다.

07 노자의 사상

노자는 인위적인 가치 분별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고, 인위적 문명을 멀리하며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노자는 군주가 백성을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ㄹ. 노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8 장자의 사상

장자는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를 강조하였다. 제물은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이고, 소요유는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다. 장자는 만물에 도가 두루 퍼져 있다고 보았으며, 만물은 도를 본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⑤ 09 ② 10 ③ 11 ④ 12 ①

01 노자의 사상

그림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 즉 무위자연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바로 알기 ① 노자는 시비와 선악을 구분하는 인위적인 기준을 비판하였다. ② 노자에 따르면 진정한 도는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③ 맹자와 주희의 입장이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⑤ 순자의 입장이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악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02 노자의 유무상생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유무상생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ㄴ. 노자는 유무상생의 관점에서 만물의 우열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ㄹ.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악의 구분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인위적인 사회 질서나 규범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였다.

03 노자의 상선약수

노자에 따르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보고, 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보았다.

04 유교와 도가의 정치 사상 비교

갑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무위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 반면, 공자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션 꼭 알기!** 공자와 노자의 정치 사상

-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함 + 덕치 + 대동 사회 → **공자**
- 도를 바탕으로 함 + 무위지치 + 소국과민 → **노자**

05 장자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그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을 강조하였다. 장자는 분별적 인식 체계를 벗어남으로써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06 장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제시된 가상 일기는 장자의 입장이다. 장자의 나비의 꿈(호접몽) 이야기는 만물이 고정된 본질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변화한다는 통찰을 담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는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06 정답친해

07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제물, 소요유,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한 이상적 인간을 성인(聖人), 지인(至人), 신인(神人), 진인(真人), 천인(天人)이라고 칭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장자는 도가 만물에 두루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인위적인 예법에 따른 통치를 거부하였다. ③ 장자는 분별을 넘어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장자가 이상적 인간으로 본 지인은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

08 장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인간이 규정한 미(美)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장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미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고통받는 <문제 상황> 속 A에게 외모로 시비와 우열을 나누는 인위적인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자연스러운 도(道)의 관점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9 장자의 제물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만물의 다름과 같음이 본래 하나라는 제물의 인식을 바탕으로, 탐욕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심재와 좌망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위자연의 도를 따라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

10 장자와 노자의 사상

자료 분석

장자는 주관적인 잣대로 대상을 재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 그대로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어.

갑: 너의 마음을 집중하여,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해
장자 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듣도록 해라. …… 기는 텅 비어 있기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직 도가 텅 빈 곳에 모이니, 비어 있는 곳이 심재이다.

을: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고, 얻기
노자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 노자는 백성들이 지식이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소박한 본성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았어.

갑은 장자, 을은 노자이다. 노자와 장자는 공통적으로 도에 기반하여 인위적인 것을 더하지 않는 무위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물처럼 낮은 곳에 처하며 다투지 않는 자세를 지향하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나라인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한편 장자는 인간의 분별적인 시각이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아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③ 노자가 아닌 장자의 입장이다.

11 노자와 장자의 사상

잡은 노자, 읊은 장자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삶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무위지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스스로 고요함을 유지하고 욕심을 비울 때 백성들 또한 본래의 순박한 본성을 회복하여 사회가 저절로 다스려진다고 보았다. 장자는 만물을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근원적인 도(道)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장자에 따르면 만물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은 참된 사람은 주관적인 분별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며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에 구별이 없다는 제물(齊物)을 강조하였다. 도가 사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의 입장에 서면 인위적 구별이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 미션 꼭 읽기! 노자와 장자의 사상

- 유무상생 + 상선약수 + 소국과민 → **노자**
- 제물 + 심재와 좌망 + 소요유 → **장자**

12 도가와 유교 사상 비교

자료 분석

[핵심] 장자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른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 반면, 순자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현실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잡: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을 타고 낚씨의 변화를 다스림으로써

장자 그에 따라 무궁함에 노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적이 없으며,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순자 읊: 성인(聖人)은 군주의 권위를 세워 백성들에게 군림하게 하였고, 예의를 밝혀 백성들을 교화시켰으며, 법도를 일으켜 백성들을 다스렸고, 형벌을 엄중하게 하여 백성들을 금지시켰다.

장자가 이상적 인간으로 제시한 성인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반면, 순자가 제시한 성인은 스스로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말해.

잡은 장자, 읊은 순자이다. 장자는 세속적인 가치나 인위적인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제시하였다. 그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적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직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을 강조하였다. 장자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무궁한 우주와 하나가 되어 노니는 소요유에 있다. 한편 유교 사상가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인이 만든 인위적인 규범인 예와 법도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② 장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각자의 직분과 공적에 따라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순자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군주의 핵심 역할로 제시하였다. ④ 장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장자와 순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26쪽

01 주제: 도(道)의 의미와 특징

[예시 답안] 도란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 또는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으로서,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채점 기준	
상	도가에서 제시한 도의 의미와 특징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도가에서 제시한 도의 의미와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노자의 이상 사회

[예시 답안] 노자는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인 소국과민을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해당 사회에서 통치자는 인위적 제도나 규범이 아닌 무위로써 백성들을 다스린다.

채점 기준	
상	노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을 '소국과민', '무위지치'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노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를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 또는 '무위로 다스리는 사회'라고만 간단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장자의 사상

- (1) **[답]** 소요유
- (2) **[예시 답안]** 소요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인 좌망은 조용히 앉아서 감각을 물리치고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심재는 욕구를 없애고 마음을 비워써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 두 가지를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 두 가지를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장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 한 가지를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노자의 상선약수

- (1) **[답]** 상선약수
- (2) **[예시 답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고, 낮추기를 잘해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는

채점 기준	
상	노자가 제시한 물의 특징을 '만물,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두 가지 이상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노자가 제시한 물의 특징을 '만물, 사람'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두 가지 서술한 경우
하	노자가 제시한 물의 특징을 '만물, 사람'을 포함하지 않고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장자의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

예시 답안 헤자는 큰 나무를 인간의 기준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장자는 사람들이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되어 편히 쉬고 노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헤자는 인간의 기준에서 큰 나무를 무용하다고 보고, 장자는 큰 나무가 다른 쓰임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차이를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큰 나무에 대한 헤자와 장자의 견해 차이를 서술하였으나, 장자가 큰 나무의 가치를 새롭게 본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하	큰 나무에 대한 헤자와 장자의 견해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27쪽

01 ④ 02 ②

01 노자와 순자의 정치 사상

자료 분석

노자는 무위자연의 철학을 정치에 적용하여, 무위로써 정치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고 보았어.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되고 **노자** 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無欲)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을: 과거의 성왕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여** 편벽한 데로 기울어져 **순자** 부정하고 난폭해져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성왕은 의를 일으키고 법도를 세워 사람의 본성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하였으며,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낸 것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예의와 법도로** 다스리는 예치를 강조하였어.

갑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통치자인 성인이 인간의 인위적인 탐욕과 허영심을 완전히 버리고, 백성들이 본래의 순박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상태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법령이나 인의를 내세워 다스리려 할수록 세상이 더 혼란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억지로 조작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무위(無爲)의 정치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평화롭게 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성인이 만든 인위적인 규범인 예(禮)를 사회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순자는 예치를 통해 각자의 능력과 도덕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한정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④ 노자가 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순자는 인간이 타고난 악한 본성을 교정하기 위해 성인이 만든 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노자와 순자의 사회 혼란의 원인과 해결 방법

구분	노자	순자
사회 혼란의 원인	인간이 만든 인위적 가치 판단과 제도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 본성
사회 혼란의 해결 방법	인위를 버리고 도에 따 라야 함	예를 통해 욕망을 조절하 고 본성을 교정해야 함

02 노자와 장자의 사상

자료 분석

노자는 유교에서 강조한 인의나 예는 사회가 혼란하여 발생한 인위적 규범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와 같은 인위에서 벗어나 무위를 지향할 것을 강조하였어.

갑: 인(仁)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義)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禮)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옹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노자** **대도(大道)가 무너지자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출현하자 크나큰 거짓이 나타났다.

을: 인과 의를 잊고 예와 악(樂)을 잊으며, 감각 작용을 물리치 **장자** 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坐忘]에 도달할 수 있다. **장자가 제시한 좌망은 귀와 눈의 작용을 쉬게 하고, 손발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며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노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유무상생의 관점을 통해 만물 간에 위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유와 무, 선과 악 등은 서로 의존하는 상대적 개념일 뿐이므로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장자는 이상적 인간으로 성인, 지인, 진인, 신인, 천인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상적 인간에 도달하려면 육체를 잊고 감각을 물리치는 좌망과 마음을 비워 정신을 맑게 하는 심재의 수양으로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와 장자 모두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를 때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사회적 규범을 버리고 도(道)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도가 사상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인위적 규범을 타파하고, 만물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존재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지향하였다.

바로 알기 ㄱ. 노자는 유무상생의 관점에서 만물의 위계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이 최상의 선이라는 상선약수의 개념을 제시하며, 성인은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ㄷ. 장자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인 예법을 고수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만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의 관점을 가질 때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03 / 인간의 괴로움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30쪽

01 연기(설) 02 (1) ㄴ (2) ㄱ (3) ㄷ 03 (1) ㉠ (2) ㉡ (3) ㉢ (4) ㉣
04 (1) 삼학 (2) 소승 불교 (3) 보살 05 ㉡ 06 ㉢ 07 ㉠ 08 ㉡

05 불교의 오온

밀줄 친 이것은 오온(五蘊)에 해당한다. 불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오온이 연기에 따라 결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바로 알기] ① 업은 몸, 입,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한다. ③ 삼독은 인간이 고통에 빠지는 원인으로,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痴]에 해당한다. ④ 삼학은 불교의 대표적 수행 방법인 팔정도가 집약된 것으로, 계(戒), 정(定), 혜(慧)가 있다. ⑤ 삼법인은 불교의 세 가지 가르침으로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 있다.

06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

불교에서는 만물이 연기에 따라 상호 의존하고 있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유교의 입장이다. ② 불교에서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지향하였다. ④ 불교에서는 무아를 주장하며 영원불변한 것은 없다고 보았다. ⑤ 도가의 입장이다.

07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 사상이인 용수가 체계화한 공(空)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공(空)은 모든 현상이 연기에 따라 발생하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08 대승 불교의 수행 방법

대승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함께 이루기 위한 보살의 실천 덕목으로 바라밀을 제시하였다. 바라밀은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이쪽 세계를 넘어, 괴로움이 사라진 저편의 경지에 이르는 뜻이다. 그 내용에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가 있으며, 이를 육바라밀이라 한다. 이는 인간이 괴로움을 이겨 내기 위해 스스로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편,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함을 보여 준다.

[바로 알기] ② 계율을 지키는 것은 육바라밀 중 지계에 해당하는 수행법이다. 선정은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31~03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불교의 연기설

제시된 글은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설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연기에 대한 자각을 통해 만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ㄷ.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보지만,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ㄹ. 불교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변하므로 고정불변하는 존재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집착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02 불교의 연기설

그림의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의 발생과 소멸이 원인[因]과 조건[緣]의 결합과 해체에 달려 있다고 보는 연기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만물은 상호 의존적이며 어느 하나도 우연히 생성되거나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

03 불교의 수행

불교는 고통을 없애고 해탈에 이르는 실천 방안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팔정도는 쾌락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고행에 머무는 두 극단을 떠난 중도(中道)의 수행법이며,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념(正念), 정정(正定), 정정진(正精進),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의 여덟 가지 바른 실천을 뜻한다.

[바로 알기] ① 불교는 만물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② 무명(無明)은 진리에 대한 무지를 뜻하며, 불교에서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③ 불교에서는 중생이 고통을 제거하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불교에서는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자각할 것을 강조하였다.

04 불교의 사성제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연기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괴로움이 생겨나는 까닭과 그것을 없애 해탈에 이르는 길을 밝히고 있다.

[바로 알기] ④ 불교의 사성제 중 멸성제는 고통이 모두 소멸한 상태에 관한 진리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관한 진리는 도성제이다.

◆ 미전 꼭 읽기! 불교의 사성제

- 고통받는 현실에 대한 진리 + 대표적 고통으로서 생로병사 → **고성제**
-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 고통의 원인으로서는 무명과 삼독 → **집성제**
- 고통이 소멸한 상태에 대한 진리 + 해탈 또는 열반 → **멸성제**
-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 + 삼학과 팔정도 → **도성제**

05 불교의 삼학과 팔정도

제시된 글에서 (가), (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각각 삼학과 팔정도이다. 사성제 중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인 도성제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학과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06 불교의 삼학과 팔정도

삼학은 팔정도가 집약된 것으로, 계학은 악행을 막고 선업을 쌓는 수행에 해당하며 팔정도 중 정어, 정업, 정명이 포함된다. 정학은 한곳에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하게 하는 수행으로 정정진, 정념, 정정이 포함된다. 혜학은 진리를 깨달아 일체의 분별심을 제거하는 수행으로 정견, 정사유가 포함된다.

[바로 알기] ㄴ. 마음을 비우는 허정의 수양 방법은 도가 사상가인 노자가 제시한 수양 방법에 해당한다. ㄹ.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수행법은 정어에 해당한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를 하는 수행이다.

◆ 이젠 꼭 알기! 삼학과 팔정도

- 계율을 지키는 공부 + 정어·정업·정명 → 계학(戒學)
- 정신을 집중하는 공부 + 정념·정정·정정진 → 정학(定學)
- 지혜를 얻는 공부 + 정견·정사유 → 혜학(慧學)

07 불교와 도가 사상 비교

자료 분석

[핵심] 인간의 고통과 그 해결 방법에 관한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말해, 순서대로 고정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해당해.

갑: 비구는 네 가지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한 것을 선한 줄 알지만 그것은 선하지 않다. 본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를 통해 생겨나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도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일에 처처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ㄴ. 노자에 따르면 가장 좋은 덕은 무위할 뿐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상덕(上德)을 지닌 사람을 성인이라고 칭했어.

갑은 석가모니, 을은 노자이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다섯 가지 요소가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며 생멸 변화한다. 한편 노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을 부정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는 무위로써 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노자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ㄹ. 무명이란 진리에 어두운 상태로,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8 부파 불교와 대승 불교

(가)는 부파(소승) 불교, (나)는 대승 불교에 해당한다. 부파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며, 아라한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대승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를 중시하며,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대승 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③, ④ 부파(소승) 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09 대승 불교의 사상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세에 선업을 쌓아 중생을 구제할 것을 목표로 하며, 타인에 대한 자비심과 자기 수행을 일치시킨다.

[바로 알기] ④ 수행자가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에 몰입하여 엄격한 종교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부파(소승) 불교에서 드러난다.

10 대승 불교의 사상

자료 분석

[핵심] 대승 불교는 깨달음의 성취와 중생의 구제를 통한 자비의 실천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저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의 병이 사라지면 저의 병도 사라집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병에 걸리면 부모도 병을 앓고, 자식이 나으면 부모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병든 것도 큰 자비[大悲]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시된 글은 대승 불교의 입장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중생 구제까지 함께 실천해야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보살을 제시하였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로,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을 뜻한다. 즉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장차 부처가 될 수행자를 가리킨다.

[바로 알기] ㄴ. 대승 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空)에 따르면,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ㄹ. 대승 불교에서는 만물은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따라 상호 의존하며 생멸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11 용수의 공(空)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용수이다. 용수는 초기 불교의 연기를 재해석하여 개별 현상에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공(空)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공 사상에 따르면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발생하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실체인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② 용수는 세상 속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고 보았다. ④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지향하였다. ⑤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난 존재와 현상은 독자적인 자성(自性)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12 불교의 자비의 실천

제시된 칼럼은 생애 통로 사업을 통해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까지 배려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 주며, 이를 불교의 자비 사상과 연결하고 있다. 자비란 부처의 끝없는 사랑이자, 남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 그리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 주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자비의 실천이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로 확대될 때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01 주제: 불교의 연기설

예시 답안 연기설이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맞물려 생겨나므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상호 의존할 뿐 홀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이다.

채점 기준	
상	불교의 연기설의 의미를 '원인과 조건', '상호 의존' 등의 용어를 넣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불교의 연기설의 의미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단순히 서술한 경우

02 주제: 불교의 삼법인

예시 답안 삼법인에는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 있다. 제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늘 생멸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제법무아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므로 불변하는 실체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열반적정은 모든 고통과 번뇌가 없어진 열반의 고요한 상태이다.

채점 기준	
상	불교의 삼법인에 해당하는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모두 명확히 쓰고, 그 의미를 각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불교의 삼법인 중 두 가지만 쓰고, 그 의미를 각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불교의 삼법인 중 한 가지만 쓰고 그 의미를 간단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불교의 삼학과 사성제

(1) **답** ㉠: 계학, ㉡: 정학, ㉢: 혜학

(2) **예시 답안** 사성제는 현실의 삶이 고통이라는 '고성제', 그 고통의 원인이 탐욕과 집착에 있다는 '집성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열반의 경지를 제시하는 '멸성제',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삼학과 팔정도를 제시하는 '도성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 가르침이다.

채점 기준	
상	사성제의 내용을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사성제의 내용을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사성제의 내용을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04 주제: 대승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수행 방법

(1) **답** 보살

(2) **예시 답안** 육바라밀 중 '보시'는 조건 없이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 덕목에 해당하고, '정진'은 깨달음의 길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실천 덕목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육바라밀에 해당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중 두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육바라밀에 해당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불교의 자비의 실천

(1) **답** 자비

(2) **예시 답안** 불교의 자비 사상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자에 대한 공감을 회복하는 윤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불교의 자비가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와 연결 지어 공동체적 관점에서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불교의 자비 사상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현대 사회와 연결 짓지 못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35쪽

01 ③ 02 ④

01 불교의 사상

이 세 가지가 중생을 해롭게 하는 것이 마치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불렀어.

자료 분석

- 탐냄[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모두 버려라. 올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깨달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다.
-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말아라. 자신을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말아라. 불교에서 광명은 번뇌를 비추어 없애는 지혜를 의미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 개념을 부정하고 무아를 주장하였으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성립한다고 보았다. 한편 인간의 괴로움이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 그리고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때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불교에서 윤회의 원인은 번뇌와 그로 인한 업(業)이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업의 동력을 끊어내야 한다. ㄴ. 불교에서 불성(佛性)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부처가 될 성품을 말한다. 불성은 닦아서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번뇌에 가려져 있던 본래의 성품을 자각하고 회복해야 할 대상이다.

만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불교의 개념

업(業)	몸·말·마음으로 지은 행위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따라서 업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원리로 이해된다.
윤회(輪廻)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죽음 이후에도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말한다.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를 이와 같은 삶의 반복에서 찾으며, 수행을 통해 윤회를 끊고자 하였다.
불성(佛性)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뜻한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02 대승 불교의 특징

자료 분석

핵심 용수는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고 보고, 모든 사물의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

무릇 현상적 존재는 모두 공하다[諸法皆空].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불연속도 아니고 연속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용수이다. 용수는 공(空) 사상을 논증하였는데, 대승 불교는 이와 같은 공 사상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었다. 여기서 공이란 모든 현상과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ㄷ. B에는 용수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대승 불교 사상가인 용수는 자아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도 모두 공하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대승 불교의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중관 사상	- 대표 사상가: 용수 -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空) →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존재하므로 사물의 독자적인 실체나 속성인 자성(自性)은 존재하지 않음 -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이 아닌 중도의 자리에서 머문다고 주장함 - 중도에 따라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실천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
유식 사상	- 대표 사상가: 세친 - 구체적인 사물의 실체[自性]를 부정하면서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마음의 작용은 존재한다고 주장함 → 사물은 오직 마음[識]의 작용으로만 존재함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현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 - 마음에 대한 깊은 논의와 마음을 닦는 수행에 관심을 가짐
공통점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모두 공(空)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기에 따라 생멸하며 자성(自性)이 없다고 주장함

I단원 실력공하기

038~041쪽

-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②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01 공자와 순자의 사상

자료 분석

핵심 공자와 순자는 모두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통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갑: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공자 사사로움을 극복해 예를 실천한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자가 강조한 극기복례에 해당해.

을: 사람은 무리 지어 생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리를 이루어 생 순자 활하는 데 사람들 사이에 구분이 없다면 서로 다투게 되고, 다투게 되면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곤궁해진다. 순자에 따르면 예를 통해 귀천, 장유, 빈부 등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해.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극기복례를 강조하였다. 순자는 사람들이 구분 없이 살아가면 다툼과 혼란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별의 기능을 지닌 예를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하늘과 인간의 역할을 구분한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② 공자는 인이 형식과 절차인 예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타고난 선한 본성의 확충으로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⑤ 공자와 순자 모두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02 맹자의 사단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사단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보고, 양지와 양능을 바탕으로 사단을 확충하면 인의예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맹자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배움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에게 내재한 마음이다. ② 마음의 능력으로 예를 배워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는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③ 맹자는 사단을 통해 인의예지의 사덕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03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인 사단을 근거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인간은 본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욕구에 따른 감정을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③ 인간의 본성을 인위를 통해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 것은 순자의 입장이다.

04 순자의 예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두면 다툼이 생긴다고 보아 학문과 예법 같은 인위를 통해 이를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이처럼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선한 도덕성을 일으켜야 한다는 화성기위(化性起爲)를 수양의 핵심으로 삼았다.

[바로 알기] ㄱ. 예치에 따르면 타고난 신분보다는 덕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높은 관직과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ㄴ. 집의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것은 맹자의 입장이다.

05 왕수인의 심즉리설

자료 분석

[핵심] 왕수인은 심즉리를 바탕으로 수양의 핵심이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욕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에 의하여 가려진 게 없다면 그것이 곧 천리(天理)인 것이니 밖으로부터 조금도 더 보탬 필요가 없다. 이 천리에 순일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발휘하여 아버지를 섬기면 곧 그것이 효(孝)인 것이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고 보았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양지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원리를 마음 밖의 사물에서 따로 구할 필요는 없으며,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면 옳고 그름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마음속 양지를 자각하고 이를 현실 속에서 드러내는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천리가 만물에 내재한다고 본 것은 주희의 입장이다. ② 개별 사물의 이치가 그 사물의 성이 된다고 본 것은 주희의 입장이다. ④ 왕수인은 마음 밖에 따로 이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⑤ 왕수인은 참된 앎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06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성즉리설을 바탕으로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왕수인은 격물을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고,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설의 입장에서 양지의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ㄴ. 주희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를 부여받기에 순순하며, 이와기가 혼재되어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질지성에 해당한다. ㄹ. 세상 만물에서 이치를 추구하는 격물은 주희의 입장에 해당하며, 왕수인은 마음속 양지의 자각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 미션 꼭 짚기!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 치지는 앎을 지극히 하는 것 + 외적 탐구 중시 + 선지후행 → **주희**
-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 + 치지는 양지를 실현하는 것 + 마음의 성찰 중시 + 지행합일 → **왕수인**

07 노자의 무위자연

노자는 인위적인 힘이 더해질수록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케이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① 지방 자치단체에게 인위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삶, 곧 무위자연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②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인 인과 예를 멀리하고 도에 따라 살 것을 주장하였다. ③ 노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왕수인이 제시할 조언에 가깝다.

08 장자의 사상

자료 분석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일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핵심] 장자는 타고난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보고, 본별과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태를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분별을 잊고 세속적 가치 판단에서 벗어날 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자신의 분별적 지혜를 갈고닦아야 한다는 것은 장자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 장자는 분별적 시각을 비판하였다. ② 순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 기준을 비판하였다. ③ 객관적 기준으로 만물의 우열을 가리는 태도는 장자가 비판한 본별에 해당한다. ④ 공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인위적인 규범인 예를 비판하였다.

09 장자의 제물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제물이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버리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되찾는 수양은 맹자의 구방심에 해당한다. ② 예를 따름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자의 화성기위에 해당한다. ③ 공자와 순자의 입장에 가깝다. ⑤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는 것은 노자의 소국과민 사상이다.

10 공자와 노자의 정치 사상 비교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백성이 사욕을 극복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익힐 수 있도록 도덕과 예로써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자는 외형적인 질서뿐 아니라 인간다운 품성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예를 바탕으로 한 덕치를 강조하였다. 반면 노자는 인위적으로 만든 예와 같은 도덕규범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불러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공자는 '아니요', 노자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③ 공자와 노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④ 공자는 '예', 노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⑤ 공자는 '아니오', 노자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11 불교의 연기설

자료 분석

비유하자면 세 개의 갈대를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세우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그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해설** 불교의 연기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하며 성립해.

제시된 글은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기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를 고집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석가모니는 무명으로 인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

제시된 가상 편지는 석가모니의 입장이다. 석가모니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를 깨달아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주희의 입장이다. ② 공자의 입장이다. ④ 맹자의 입장이다. ⑤ 왕수인의 입장이다.

13 불교의 사성제

그림에서 (가)는 집성제, (나)는 멸성제에 해당한다. 사성제 중 고성제는 괴로움의 현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를 일컫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이 있다.

바로 알기 ㄴ. 고성제에 대한 설명이다. ㄷ.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 일체개고는 부처가 깨달은 네 가지 진리인 사법인에 해당한다. 멸성제는 열반의 상태를 일컫는다.

14 대승 불교의 특징

대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만 치우친 부파 불교의 보수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고, 중생과 함께하는 이타적 삶과 육바라밀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갑. 부파 불교의 특징이다. 병. 아라한은 부파 불교에서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이다.

14 정답천해

15 주제: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에 대한 입장

예시 답안 (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나): 양지를 실현하는 것

채점 기준	
상	주희의 격물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또는 '사물에 나아가는 것'으로, 왕수인의 치지를 '양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또는 '치양지'로 모두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주희의 격물과 왕수인의 치지 중 한 가지만 명확히 서술한 경우

16 주제: 장자의 수양 방법

예시 답안 심재, 마음에 있는 욕구를 씻어 내어 정신을 맑게 함으로써 내면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상	(가)가 심재임을 밝히고, 마음의 욕구를 비워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수양 방법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가)가 심재임을 밝혔으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7 불교의 연기와 자비의 실천

예시 답안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에 따라 만물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깨닫고,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는 자비의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연기설에 따라 만물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배려하는 실천적 태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연기설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를 자연 보호의 실천적 태도와 연결하는 논거가 다소 부족한 경우



01 / 사상적 차이는 어떻게 해소되고 조화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46쪽

- 01 일심(一心) 02 (1) ㄱ (2) ㄷ (3) ㄴ 03 (1) ㉠ (2) ㉡ (3) ㉢
04 (1) ㉠ (2) × (3) × 05 ㉢ 06 ㉡ 07 ㉤ 08 ㉣

04 원효, 의천, 지눌의 불교 사상

- (2) 지눌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돈오(頓悟)를 강조하였지만, 깨달음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05 원효의 화쟁 사상

원효는 여러 불교 이론들 간의 대립을 화통하여 각 사상의 차이와 다양성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일심이라는 공통의 바탕 위에서 이를 화쟁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① 원효는 교종과 선종을 비롯한 여러 불교 사상을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② 원효는 무애행과 정토 신앙 등을 통해 불교를 일반 백성에게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④ 원효는 종파 간의 대립 속에서도 각 입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화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원효는 다양한 교리와 사상을 종합하고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06 원효의 일심이문 사상

일심이문은 모든 마음을 하나의 일심(一心)으로 보고, 이를 진여문(진리·깨달음의 측면)과 생멸문(현상·변화의 측면)으로 설명한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일심은 진여문만이 아니라 생멸문까지 포괄한다. ③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독립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일심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낸 것이다. ④ 진여문과 생멸문은 대립하는 별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설명하는 두 측면이다. ⑤ 진여문은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청정한 성품을, 생멸문은 분별과 대립을 일으키는 성품을 의미한다.

07 의천의 불교 통합 사상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08 지눌의 돈오점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로, 그는 단박에 깨달은 후 점진적 수행을 이어 가야 한다는 '돈오점수'의 수행법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돈오돈수는 중국의 불교 사상이 해능이 강조한 수행법으로, 그는 불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수행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47~04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일심과 화쟁에 대한 원효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그는 모든 현상이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대립하는 종파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아우르는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마음에는 본래의 청정한 성품인 진여문과 분별을 일으키는 성품인 생멸문이 섞여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원효는 현실(생멸문)과 진리(진여문)를 서로 분리된 두 세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마음(일심)의 두 측면일 뿐이라고 보았다. ㄴ. 원효는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 대립을 해소하고 조화를 추구하였으므로, 각 종파의 주장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02 원효의 화쟁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그는 서로 다른 종파의 대립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배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장들을 통합하는 화쟁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원효는 일심 사상을 토대로 당시 서로 대립하던 다양한 불교 이론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② 원효는 다양한 종파의 주장이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진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거나 다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원효는 일심을 더러움과 깨끗함, 참과 거짓과 같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④ 원효는 당시 여러 불교 종파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를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론에만 집착한 데서 찾았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부처의 참된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03 일체유심조에 대한 원효의 입장

제시된 글은 원효가 지은 시이다. 이처럼 승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를 시로 표현한 것을 '오도송'이라고 한다. 그는 이 시에서 같은 것을 두고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흙구덩이'와 '무덤'으로 다르게 인식한 경험을 통해 모든 현상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따라 드러난다는 깨달음을 표현하였다. 원효가 지은 이 오도송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는 '심외무법(心外無法)'이라는 원효 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 준다.

[바로 알기] ① 원효는 깨달음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② 불교에서는 고정된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무아(無我)'의 입장을 취한다. ③ 불교에서는 중생이 타고난 성품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무명과 번뇌에 의해 윤회를 반복한다고 본다. ⑤ 원효는 여러 불교 종파의 대립을 넘어서 통합(화쟁)을 강조하였다.

04 교종과 선종의 조화에 대한 의천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그는 교종 중심의 불교 관 안에서 선종과 조화를 추구하였고, 교(敎)만을 중시하는 태도와 선(禪)만을 중시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또한 부처의 가르침이 언어를 통해 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선종은 부처의 가르침은 언어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만 전해진다고 보았다.

05 불교의 통합과 수행에 대한 원효와 의천의 입장

같은 원효, 율은 의천이다. 원효와 의천은 공통적으로 여러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애행은 의천이 아니라 원효가 실행한 수행 방식으로, 원효는 광대 복장을 하고 '겉림이 없다.'라는 뜻의 무애(無碍)를 새긴 표주박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차별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무애행을 몸소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그는 백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 연구와 같은 수행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念佛)하면 극락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정도 신앙을 전하였다. 이처럼 원효는 중생 구제를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귀족 중심으로 전개되던 당시의 불교를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06 깨달음 이후의 수행에 대한 지눌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그는 단번에 깨달음을 얻더라도 오랫동안 몸에 밴 번뇌의 습기를 없애기 위한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아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닦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번뇌의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아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07 돈오점수에 대한 지눌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그는 수행에 앞서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깨달음 이후에도 오랫동안 몸에 밴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교리 연구보다 마음 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지눌은 '돈오'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인식과 습기는 단박에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점진적인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지눌은 깨닫기 전의 수행을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보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돌로 뿌리를 누르는 행위'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선오후수(先悟後修), 즉 먼저 깨닫고 이후에 닦아 가기를 강조하였다. ④ 지눌은 교(경전·교리)를 참고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08 수행 방법에 대한 지눌과 의천의 입장

같은 지눌, 율은 의천이다. 지눌은 깨달음 이후에도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의천은 교관점수와 내외점진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교관점수는 의천의 입장이다. 지눌은 정혜쌍수(선정+지혜)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의천은 교(경전 이해)+관(수행)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ㄴ.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은 선종의 극단적 불립문자(不立文字) 입장이다. 그러나 지눌은 선 수행을 중시하면서도 교학을 함께 인정하였고, 의천은 경전에 기초한 교리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선종 수행을 함께 수용하여 교학과 수행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눌과 의천 모두 언어와 문자를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9 교선 통합과 수행에 대한 의천과 지눌의 입장

같은 의천, 율은 지눌이다. 제시된 글에서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가르침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점수를, 지눌은 깨달은 이후에도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자료 분석

문자에 의지해 진리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경전과 언어는 방편일 뿐 궁극적 진리는 마음으로 직접 깨달아야 함을 의미해.

의천: 갑: 선종에서 말하는 불립문자는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에게나 가능한 경지이다. 이를 근거로 경전의 학습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 부분적인 깨달음에 머물거나 경전을 낮춰 보아서는 안 되며, 교(敎)와 관(觀)의 가르침을 함께 닦아야 한다. **[핵심]** 의천은 경전 읽기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여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는 '교관점수'를 강조하였다.

지눌: 율: 깨달은 후에도 오래도록 비추어 보고 살펴야 한다. 망념이 홀연히 일어나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데 이르면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핵심]** 지눌은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진리를 단박에 깨친 뒤 점차적으로 번뇌를 소멸시켜 가는 수행법인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10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에서 학습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찾아야 한다.

11 종파 간 대립 극복과 통합에 대한 원효와 지눌의 입장

같은 원효, 율은 지눌이다. 원효와 지눌은 모두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였다. 다만 원효는 화쟁을 통해 여러 종파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지눌은 선을 중심으로 교를 포섭하여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바로 알기] ① 원효의 화쟁 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일심이다. ② 원효는 원융회통의 논리를 바탕으로 각 종파의 교리와 해석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화해와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지눌은 먼저 깨닫고 이후에 닦아 가는 선오후수(先悟後修)를 강조하였다.

◆ 미전 꼭 알기! 원효, 의천, 지눌의 사상

- 일심 사상, 일체유심조 + 화쟁 사상 + 무애행 → 원효
- 교종 중심 불교 통합 + 내외점진 + 교관점수 → 의천
- 선종 중심 불교 통합 + 돈오점수 + 정혜쌍수 → 지눌

12 깨달음 이후 수행 방법에 대한 지눌의 입장

같은 지눌, 율은 중국 불교 사상가 혜능이다. 혜능은 깨달음 이후에 별도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01 주제: 원효가 실천한 무애행과 불교 대중화

예시 답안 원효는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을 실천하며, 불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무아미타불’만 염불하면 극락에 이를 수 있다는 정도 신앙을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백성들도 쉽게 불교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채점 기준	
상	무애행의 특징(형식에 얽매이지 않음)과 대중적 수행 방법(염불 또는 정도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한 점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무애행의 특징이나 불교 대중화 중 한 가지 요소만 서술하거나, 두 요소를 언급하였더라도 그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한국 불교의 의의

예시 답안 화합과 통합의 정신으로 종파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불교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였다. 또한 자비를 실천하여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	
상	한국 불교의 의의를 두 가지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한국 불교의 의의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원효의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

- (1) **답** 일심
 (2) **예시 답안** 원효는 종파 간의 대립되는 사상과 주장들을 일심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화쟁을 통해 이를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	
상	원효의 주장을 일심과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원효의 주장을 일심과 핵심어 중 한두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의천이 강조한 수행 방법

- (1) **답** (가): 교(敎), (나): 선(禪)
 (2) **예시 답안** 의천은 교리 공부에만 치우치거나 참선 수행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모두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경전을 통한 교리 이해(교)와 참선을 통한 마음 수행(관)을 함께 실천하는 교관겸수를 바람직한 수행 방법으로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의천이 ㉠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바람직한 수행 방법으로 교리 이해(교)와 마음 수행(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의천이 ㉠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교리 이해(교) 또는 마음 수행(관)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두 요소를 모두 언급하였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교선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한 의천과 지눌

- (1) **답** 정혜쌍수

- (2) **예시 답안**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의천은 교종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통합)를 추구하였고, 지눌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과의 통합을 추구하였음을 모두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의천 또는 지눌 중 한 사상의 통합 방향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51쪽

01 ㉠ 02 ㉡

01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한국 불교 사상가들의 입장

같은 지눌, 읍은 의천, 병은 원효이다. 지눌과 의천은 불교의 교리 공부(교)와 참선 수행(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아,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통해 양 종파의 통합을 지향하였다. 원효는 깨달음의 근거를 일심에 두고, 모든 사상을 일심의 다양한 표현으로 이해하며 화쟁을 통해 종파 간 대립을 조화롭게 회통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 지눌은 교리 공부와 참선 수행을 함께 중시하는 정혜쌍수와, 깨달음 이후에도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경전 공부보다 참선 수행만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입장은 지눌의 견해가 아니다. ㉡. 불성은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진 것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을 점차 변화시켜 완전한 경지에 이른다는 설명은 불교의 기본 입장과 원효와 의천의 사상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

02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에 대한 의천과 지눌의 입장

자료 분석

이 자료는 경전 학습과 수행을 함께 실천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천의 교관겸수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 '경(經)'은 불교의 경전과 교리를 배우는 것, 즉 이론적 이해(敎, 敎)를 의미해. 그리고 '관(觀)'은 참선과 명상 수행, 즉 실천적 수행(觀, 觀)을 의미해.

갑: 나의 스승은 “관(觀)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경(經)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교관에 지극히 마음을 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니, 화엄을 전수하더라도 관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을: 어린아이의 눈, 귀, 코, 혀, 몸 등이 어른과 다르지 않음을 지눌 깨달는 것이 돈오(頓悟)이고, 이를 점차적으로 공덕을 쌓아 완성해 가는 것이 점수(漸修)이다. 이는 연못의 얼음이 본래 물임을 알지만 햇볕을 받아 서서히 녹아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범부가 본래 부처임을 깨달은 뒤에도 수행을 통해 부처의 경지를 점차 완성해 가는 것과 같다.

이 자료는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을 설명하고 있어. 어린아이의 신체가 어른과 다르지 않다는 비유처럼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단번에 깨달는 '돈오'와, 얼음이 본래 물이지만 햇볕을 받아 서서히 녹듯이 깨달음 이후에도 번뇌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 수행을 지속하는 '점수'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어.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모두 함께 닦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와 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을 비판하고, 교관점수를 통해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번뇌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돈오 이후 점수를 통해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의천은 경전 공부뿐만 아니라 관문 수행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보았으며, 교와 관을 함께 닦는 교관점수를 강조하였다. ②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고 교와 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지눌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강조하였으며, 어느 하나를 먼저 닦고 나중에 다른 하나를 닦아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⑤ 의천과 지눌은 모두 교리 학습과 수행, 계율의 실천을 중시하였으며, 욕구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을 주장하지 않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한국 불교 사상가들의 입장

원효	• 일심(一心) 사상: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같은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마음을 의미하며, 편견과 갈등을 넘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원융회통의 근거이자 화쟁의 주체임 → 원효는 일심을 회복하여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함 → 일심(一心)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과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전체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 • 화쟁(和諍) 사상: 원효의 핵심 사상으로, 여러 불교 종파의 다양한 주장을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사상임 → 당시 중관 계통과 유식 계통이 서로 대립하였으나, 원효는 어느 한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다른 이론 간의 모순을 해소하고 원만한 통합을 이루는 원융회통을 추구함
의천	• 교종의 종파 중 하나인 천태종(天台宗)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며, 내외겸전과 교관점수를 강조함 • 의천은 경전 연구뿐만 아니라 참선 수행도 중시하는 천태종의 수행 방식이 선종과도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천태종에 주목함 • 교종 내부의 여러 종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교 교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짐 • 교학 연구를 통해 불교 이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종의 실천적 수행을 수용하여 불교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고, 특히 천태종의 교관점수 전통이 교종과 선종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봄
지눌	• 당시 일부 선종 수행자들이 경전에 담긴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참선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비판함 →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포용하고자 하였으며, 선종과 교종이 제시하는 궁극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 • 수행은 단순한 이론적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고 봄 → 돈오점수와 정혜쌍수 사상으로 구체화됨 • 깨달음이란 신비한 능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르는 일과 같은 일상적 실천 속에서 드러난다고 봄

02 / 도덕적 감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현되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56쪽

01 (가): 사단, (나): 칠정 **02** (1) ㄱ (2) ㄴ (3) ㄷ **03** (1) ○ (2) ○ (3) × **04** (1) 이 (2) 기발이승일도설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3 본연지성에 대한 이황의 입장

(3) 이황은 본연지성은 이(理)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하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05 이황의 사단 칠정론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인간의 감정(情)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감정이 발생하는 근원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도덕적 감정으로서 선한 감정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면서 이가 그 위에 타는 감정으로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순수한 도덕 감정이므로, 선악이 달라지지 않는다.

06 이황의 수양론

이황은 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성성, 정제엄숙, 주일무적 등을 제시하였다. 상성성은 항상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정제엄숙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바로 알기] 주일무적은 한 가지 마음에 집중하여 잡념이 없는 상태이다.

07 이이의 사단 칠정론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그 근원이 같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가 발하고 이는 그 기에 올라타므로 이는 스스로 작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며 칠정 중 선한 감정이 사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칠정 중 선한 감정이 사단이라고 보았다. ② 이이에 따르면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③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⑤ 이황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은 순수한 도덕 본성이 발현된 도덕적 감정으로, 순선무악하다고 보았다. 반면 칠정은 육체의 영향으로 발현된 일상적 감정으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08 이이의 수양론

이이는 수양에서 경(敬)을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보았고, 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② 06 ① 07 ④
08 ③ 09 ⑤ 10 ③ 11 ⑤ 12 ④

01 이황의 도덕적 감정의 발현 과정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본성인 본연지성이 외부 사태에 반응하여 드러난 감정으로, 사단은 순선무악한 특징이 있다.

[바로 알기] ① 기는 물질적 요소로 감정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칠정은 일반 감정으로 선악이 모두 가능하다. ④ 본연지성은 도덕적 본성 자체를 의미한다. ⑤ 기질지성은 기질의 영향을 받은 성이다.

02 이황의 수양론

이황은 학문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경(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은 감정을 없애거나 제거하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바로고 깨어 있게 유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03 이황의 사단 칠정론

자료 분석

이황은 이가 기보다 가치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았어. 맹자가 말씀하신 성선(性善)에서 '성(性)'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그 가리키는 바가 이(理)에 있고, 기에 있지 않으므로 순선하여 악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까지 아울러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의 본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이황은 이기불상리보다 이기불상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그는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이를 따르는 도덕적 감정인 사단과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일상적 감정인 칠정을 구분하였다.

[바로 알기] ①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감정은 칠정에 해당한다. ② 이이의 입장이다. ④ 사단은 인간이 본래 지닌 도덕적 단서이므로 교기질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⑤ 사단은 선한 도덕 감정이므로 기질의 영향에 따라 선악이 달라지지 않는다.

04 이황의 이기론

그림의 사상가는 이귀기천을 주장한 이황이다. 이황은 이와 기의 성격 차이에 근거하여 도덕 감정인 사단은 이가, 일반 감정인 칠정은 기가 주도하여 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05 이이의 이기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그는 이와 기의 관계를 물과 그릇, 공기와 병에 비유하며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수양과 노력에 따라 기질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도덕 본성으로서의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도덕 본성인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아 맑고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교기질(矯氣質)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이가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긍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본연지성인 이가 발하면 도덕적 감정인 사단이 발현한다고 본 것은 이황이다. ④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근원이 같으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관계라고 보았다. ⑤ 이이에 따르면 이는 기와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인 묘한 관계이다.

◆ 미전 꼭 읽기! 이이의 이통기국

- 이(理): 무형의 원리로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함 → 이통(理通)
- 기(氣): 유형의 재료로 사물마다 다르게 나타남 → 기국(氣局)
- 사물의 다양성: 이의 차이가 아니라 기의 차이에서 나타남
- 비유: 같은 물도 그릇 모양에 따라 다르게 보임 (물 = 이, 그릇 = 기)

06 이이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그는 이가 두루 통하고 기가 국한된다는 '이통기국'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상적 감정을 조절하는 수양법인 교기질로 기질지성을 바로잡아 도덕 본성인 이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이이의 이기론에 따르면 이가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 교기질로 기질지성을 바로잡아 도덕 본성인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07 이이가 바라본 수양의 궁극적 목표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양의 궁극적 목표를 성(誠)에 이르는 것에 두었으며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바로 알기] ㄹ. 이이의 교기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질을 바로잡는 것이다.

08 이이의 수양론

자료 분석

이이는 동일한 이(理)라도 기가 국한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해.
기(氣)의 근본이 하나인 것은 이(理)가 통하기 때문이요, 이가 만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은 기가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타게 된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그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통기국으로 설명하며 이(理)는 무형으로서 하나로 통하여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내재하지만, 기(氣)는 유형의 존재로 각 사물마다 국한되어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ㄹ. 이황의 입장이다. 이황은 본연지성은 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선하지만, 기질지성은 기질의 상태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 주재성을 강조하며 이도 운동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09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 차이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기불상리를 인정하면서도 이기불상잡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며 이는 귀하고 기는 비천하다는 이귀기천을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에 운동성이 없다고 보았고, 이기불상리를 강조하며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국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⑤ 이황은 만물의 재료인 기뿐만 아니라 만물의 원리인 이도 운동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이는 기가 발하고 이가 그 기에 올라탈 뿐, 이는 스스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 이이와 이황이 본 이와 기의 관계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본연지성이 기를 따라 드러난 선한 감정이다. 이황은 원리적 개념인 이는 절대적으로 선하지만, 현상적 개념인 기는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이황의 입장이다. 이황은 사단을 본연지성인 이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ㄴ. 이황은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선하지만, 기는 현상적 요소로서 선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11 이황과 이이의 견해 차이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을 칠정과 다른 별개의 감정으로 설정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드러난 도덕 감정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이는 이황이 칠정에서 드러나는 인의예지의 단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사단이 성이 아니라 정이라는 점은 이황과 이이 모두 동의한다. ② 이와 기가 현실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③ 이는 만물에 공통적으로 내재한 원리라고 보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④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는 것은 두 사상이 모두 부정할 입장이다.

◆ 미전 꼭 짚기!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 이가 발한 도덕 감정이 사단 + 기가 발한 일반 감정이 칠정 → **이황의 사단 칠정론**
-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감정 + 칠정 중 선한 감정이 사단 + 칠정이 사단을 포함 → **이이의 사단 칠정론**

12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 비교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따라서 이황의 입장에 비해 이이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이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정도(X)’와 ‘기보다 이가 더 귀하다고 보는 정도(Z)’는 낮고,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도(Y)’는 높다. 이황은 만물의 원리인 이도 스스로 작용하는 운동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귀기천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이는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60쪽

01 주제: 사단과 칠정에 내재된 선과 악에 대한 이황의 관점

[예시 답안] 이황은 사단을 순수한 도덕 본성이 발현한 도덕적 감정으로 여겼으며, 순선무악하다고 보았다. 반면 칠정은 육체의 영향으로 발현된 일상적 감정으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사단은 순선무악, 칠정은 가선가악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사단과 칠정 중 한 가지 감정에 대한 이황의 관점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이이의 이통기국

[예시 답안] 이이에 따르면 ‘이’는 모든 사물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이지만, ‘기’는 형태가 있어 시공간에 따라 국한된다. 따라서 만물은 같은 이를 지니고 있어도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이는 만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기는 사물마다 국한된다는 점과 사물의 다양성이 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이통 또는 기국 중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이황의 수양론

- (1) **[답]** 경(敬)
 (2) **[예시 답안]**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주일무적,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는 정제엄숙, 항상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상성성을 실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이황이 제시한 경의 방법을 핵심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이황이 제시한 경의 방법을 핵심어 한두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이황이 제시한 경의 방법을 핵심어 없이 서술한 경우

04 주제: 이이의 이기론과 수양론

- (1) **[예시 답안]** 윗글을 주장한 사상은 이이다. 이이는 이와 기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현실 세계의 변화는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사물의 원리이고 기는 그것을 현실에서 드러내는 요소이므로,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이이의 입장에서 이와 기가 왜 서로 분리되지 않는 작용 관계를 가지는지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이와 기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 (2) **[예시 답안]** 이이는 기질이 맑지 못하면 본래 선한 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양을 통해 기질을 바로잡아 선한 본성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이이가 주장한 수양의 목적이 기질을 바로잡아 선한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험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이이가 주장한 수양의 목적을 기질을 바로잡는 것과 연관 짓지 않고 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만 서술한 경우
하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본성을 바꾸어야 한다.'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서술한 경우

05 주제: 이황이 본 사단과 칠정의 발현 과정

(1) **답** 이황

(2) **예시 답안**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하여 나타난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나타난 일반 감정이라고 주장하며 두 감정의 근원이 서로 다를 것을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사단은 이가 발한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일반 감정이라는 점을 모두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사단과 칠정 중 한 가지 감정의 발현 과정만 서술한 경우
하	사단과 칠정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61쪽

01 ⑤ 02 ⑤

01 이이와 기의 작용에 대한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

자료 분석

이황은 만물의 원리인 이도 운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의 주재성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가: 주자가 이(理)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도 없다고 말
이황 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의 지극히 신묘한 생성 작용을 말한 것이다.

을: 어찌하여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는 것을 본 후 측은
이이 지심이 드러나는가?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지는 것은 바로 '기'이며, 이것이 기가 발한 것이다. 이러한 측은지심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타는 것이다.

이이는 외부 자극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감정 반응이 본성에서 주어진 인(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며, 이를 '이가 올라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 역시 작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며, 칠정 중 선한 감정을 사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는 경의 실천으로 기질 지성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황과 이이 모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성(性)에, 사단과 칠정은 정(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 역시 운동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② 이황에게 성은 마음속의 본체이며, 이것이 밖으로 표출된 결과물이 정이다. ③ 이이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이 그 자체로 순선하기 때문에 변화의

대상이 아니다. ④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며 칠정 중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이황	-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도덕 감정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일반 감정임 사단은 언제나 선하고 칠정은 기질의 영향으로 선악이 나타날 수 있음
이이	-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서로 다르지 않고 모두 기가 발한 감정임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며, 감정의 차이는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됨

02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자료 분석

가: 칠정과 사단을 각각 나누어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발현하는 것에는 각각 혈액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으므로 주(主)가 되는 바에 따라 이와 기로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다.

을: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이이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지 않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칠정포사단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각각 이와 기에 귀속시켜 설명하며, 발현의 주도성에 따라 사단은 이, 칠정은 기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이는 스스로 발할 수 없고, 오직 기만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이는 이황에게 기만 스스로 발할 수 있으며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두 사상이 모두 칠정이 정(情)에 속한다고 보았다. ②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그 근원이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이가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③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 다른 연원에서 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황이 이를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④ 두 사상이 모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성(性)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이황과 이이 사상의 공통점

공통점	- 이와 기는 현실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면서도 개념적으로는 서로 섞일 수 없다.(강조점이 다를 뿐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 모두 인정함) -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성(性)에 해당하고, 사단과 칠정은 정(情)에 해당한다. - 사단은 선천적인 것으로, 성에 내재한 사덕(인의예지)을 파악하는 단서이다.
------------	---

03 / 도덕적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066쪽

01 (1) × (2) ○ (3) ○ 02 (1) ㉠ (2) ㉡ (3) ㉢ 03 (1) 실천적
(2) 영지 (3) 시작 04 자주지권 05 ㉢ 06 ㉤ 07 ㉡ 08 ㉡

01 조식의 경의(敬義) 사상

(1) 조식의 경의 사상에 따르면 경은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내적 수양이고, 의는 의로움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외적 수양에 해당한다.

05 조식의 성리학

조식은 내면 수양에 해당하는 경과 현실에서의 도덕적 실천에 해당하는 의를 함께 중시하였다. 그는 학문이 단순한 이론 탐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일상 속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조식은 이론적 탐구나 학습에 치우친 당시 성리학의 풍조를 비판하고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②, ⑤ 조식에 따르면 내면의 수양은 의로움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고, 의로움의 실천은 경이라는 내적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 의는 서로 연결된 수양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조식은 벼슬에 나아가는 것보다 처사의 삶을 중시하였다.

06 정제두의 양명학

정제두는 인간의 마음속 생리가 도덕 실천의 근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는 성리학의 격물치지를 비판하였다.

[바로 알기] ⑤ 성리학의 입장이다. 정제두는 마음 밖에 별도의 이치가 없다고 보는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07 정약용의 수양론

‘혼자 있을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삼가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정약용이 강조한 신독(慎獨)이다. 신독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려는 수양 태도를 의미한다.

[바로 알기] ① 경의는 조식의 수양론이다. ③ 제물은 장자가 제시한 개념으로, 만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④ 치양지는 왕수인이 제시한 수양론으로, 마음속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구방심은 맹자가 제시한 수양론으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08 정약용의 실학

정약용은 사단이 사덕의 단서가 된다는 성리학의 단서설을 비판하고 사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덕이 형성된다는 단시설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인간의 육체적 욕구가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④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다. ⑤ 정약용은 인간에게 자주지권이 있으므로 도덕적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067~06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조식의 경의(敬義)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그는 경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이를 실천해야 하며, 내적 수양과 외적 실천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 조식에 따르면 내적 수양인 경은 외적 수양인 의로 이어져야 한다. ㉡ 조식은 재야에 머무는 처사의 삶을 추구하였다.

02 조식의 성리학

제시된 가상 편지를 작성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그는 이론적 논쟁에만 치우친 당대 성리학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조식에 따르면 참된 학문은 이론적 답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도덕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03 정제두의 생리(生理)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리설을 수용하여 도덕적 삶의 근거를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양지(良知)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참된 앎과 도덕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정제두는 마음에 본래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② 정약용의 입장이다. ④, ⑤ 주희의 입장이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설을 수용하고 양명학을 계승하였다.

04 주희와 정제두의 사상 비교

자료 분석

[핵심] 정제두는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도덕성을 중시하였고,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넓히는 공부를 중시하였어.

갑: 만물에는 저마다 이치가 담겨 있으므로, 학문하는 자는 사
주희 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
하나 밝혀 나가다 보면 앎이 점차 확충되어 마침내 마음의
앎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을: 사물에 이(理)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물을
정제두 연구해서 이(理)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물에 따라
각각을 결정하고 때에 맞게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속에 있으니, 어찌 내 마음 밖에 있다고 여겨 따로 이치
를 구하려 하는가?

값은 주희, 율은 정제두이다.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 반면, 정제두는 도덕적 이치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음속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제두는 주희에게 도덕적 이치는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파악한 것은 정약용의 입장이다. ② 정제두는 사물 탐구가 아니라 마음속 양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정제두는 양지를 불완전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전면적 도덕 능력임을 드러내기 위해 생리 개념으로 보완하였다. ④ 정제두는 외부 사물에 이치가 있다고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이치가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05 정제두의 양명학 수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그는 왕수인의 양명학을 수용하여 양지를 실현하는 학문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마음속에 있으며, 양지를 실천하는 것이 곧 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ㄹ. 정제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제두는 생리를 깨달으려면 외물 탐구가 아니라 마음속 양지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06 정약용의 성기호설

그림의 강연자는 정약용의 성기호설을 설명하고 있다. 정약용에 따르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며, 타고난 사단을 실천해야 사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바로 알기] ㄴ. 형구의 기호는 생존을 위해 추구하는 육체적 본능에 해당한다. 정약용은 이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육체적 욕구는 적절히 조절하면 선이 될 수 있고, 지나치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ㄷ.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인 결실이다.

◆ **이전 꼭 읽기!**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

- 도덕적 경향성 + 도덕적 선 + 오직 인간만이 지님 + 항상 선함 → **영지의 기호**
- 생리적 경향성 + 육체적 즐거움 + 인간과 동물 모두 지님 + 그 자체로는 선악이 없음 → **형구의 기호**

07 정제두의 지행합일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그는 도덕적 앎과 실천이 하나 되는 삶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8 인간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정약용은 인간의 선악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과 실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의예지의 사덕 또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09 정약용의 사덕

[자료 분석]

핵심 정약용은 사덕을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선천적인 도덕 감정인 사단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 결실로 보았다.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이것을 인(仁)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선하게 한 뒤에 이것을 의(義)라고 하며, 손님과 주인이 서로 절하고 읍한 뒤에 이를 예(禮)라 하고, 사물을 명료하게 분별한 뒤에 이를 지(智)라 한다. 어찌 인의예지 네 알맹이가 또렷하여 복숭아나 살구의 씨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텅어리로 잠재해 있는 것이겠는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그는 인의예지가 선천적으로 완성된 덕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영지의 기호)이 주어졌다는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③ 정약용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약용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덕이 있음을 알려 주는 단서가 아니라, 우리가 덕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단시설을 주장하였다.

◆ **이전 꼭 읽기!** 단서설과 단시설

- 사덕은 본성에 내재함 + 사단은 사덕이 내재함을 드러내는 단서 + 성리학의 입장 → **단서설**
- 사덕은 후천적으로 형성됨 + 사단은 사덕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작 + 정약용의 입장 → **단시설**

10 정약용의 실학

정약용은 관념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를 부정하고,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자주지권을 지닌 자율적 존재로서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에 모든 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로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④ 정약용에 따르면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고, 형구의 기호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지닌다.

11 정약용의 자주지권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지권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선과 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동물에게 형구의 기호만 있다고 보았다. 선을 좋아하는 본성은 영지의 기호에 해당한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자주지권은 선과 악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로, 이를 활용하여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 ③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사단을 실천하여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④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 중 하나인 측은지심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12 정약용과 이항의 사상 비교

자료 분석

정약용은 선을 지향하는 기호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사단을 실천해야 사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어.

갑: 어린아이가 우물모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 정약용도 가서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측은해 하는 마음만으로는 인(仁)이라 할 수 없다.

을: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어디에서 발하는가? 이는 인의예의의 성에서 발하는 것이다. 사단의 발함을 맹자가 이미 마음이라 하였으니, 마음은 본래 이와 기의 합이지만, 사단을 가리켜 말할 때 이가 주가 되는 까닭은 인의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그 가운데 있으며, 이 네 마음이 그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항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사덕이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보았어.

갑은 정약용, 을은 이항이다. 정약용은 사단이 사덕의 시작이 된다는 단시설을 주장하였으며, 사덕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경향성인 영지의 기호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항은 성리학에 기초하여 사단은 사덕의 단서가 된다는 단서설을 긍정하였으며, 사덕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항은 하늘이 부여한 본래의 도덕적 본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함양하기 위해 경(敬)의 수양에 힘을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이 주장한 단시설은 사단이 사덕의 시작이 된다는 입장이다. ② 정약용에 따르면 자주지권은 하늘이 부여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④ 이항이 정약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⑤ 정약용은 욕구를 생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의 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삶의 동력으로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070쪽

01 주제: 정제두의 생리(生理)

예시 답안 생리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로, 생명의 원리이자 양지에 해당한다. 이는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채점 기준	
상	정제두의 생리 개념을 '인간의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 '생명의 원리이자 양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정제두의 생리 개념을 '인간의 마음에서 생동하는 이치', '양지'라고만 간단히 서술한 경우

02 주제: 정약용의 성기호설

예시 답안 성기호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종의 경향성, 즉 마음의 기호라고 본 사상이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의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기호로 이해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본 사상이라고만 간단히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정약용의 사상

(1) **답** (가): 영지의 기호, (나): 자주지권

(2) **예시 답안**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를 따르고 자주지권을 바르게 발휘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신독을 강조하였다. 신독은 인간을 내려다보는 하늘을 두려워하며 혼자만 아는 자신의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정약용의 수양 방법을 (가), (나)와 연결 짓고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정약용의 수양 방법을 (가), (나)와 연결 지었으나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정약용의 수양 방법을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조식의 경의 사상

(1) **답** (가): 경, (나): 의

(2) **예시 답안** 조식은 경이라는 내적 수양은 의로움을 통해 실천되어야 하고, 의로움의 실천은 경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경과 의를 분리된 수양으로 보지 않고 서로 연결된 수양으로 보았다.

채점 기준

상	경을 통한 내면의 수양과 의를 통한 외적 실천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경과 의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두 개념의 유기적 연결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하	경과 의의 의미만 단순히 나열한 경우

05 주제: 격물치지에 대한 정제두의 입장

예시 답안 율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주희는 앎을 극진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제두는 도덕적 이치가 외부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양지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제두는 주희에게 외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양지를 자각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반론할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주희임을 밝히고, 주희의 입장에 대한 정제두의 반론을 '이치, 양지, 사물'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주희임을 밝히고, 주희의 입장에 대한 정제두의 반론을 '이치, 양지, 사물' 중 일부만 포함하여 간단히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주희임을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격물치지에 대한 정제두의 입장만 서술한 경우

01 ② 02 ①

01 조식과 정제두의 사상

자료 분석

핵심 조식과 정제두는 공통적으로 이론에만 머무는 공부를 비판하고, 마음의 수양이 현실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갑: 나의 집에 있는 ‘경’과 ‘의’ 두 글자는 천지의 해와 달과 같아
조식 만고에 두루 빛나도 변함이 없으며, 성현의 온갖 말씀도 끝
내 이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을: 이치가 모두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니 알지 못하는 이치가
정제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원리를 멀리서 찾
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살펴 그 앎을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

갑은 조식, 을은 정제두이다. 조식은 경과 의의 실천을 학문의 핵심으로 보았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양명학을 계승하여 도덕적 이치가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마음을 돌이켜 앎을 밝힐 것을 주장하였다. 조식과 정제두 모두 도덕적 앎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ㄴ. B에는 조식은 ‘예’, 정제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조식은 벼슬을 거부하는 처사의 삶을 추구하며, 내적 수양에 기반한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조식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ㄷ. 정제두는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왕수인의 심즉리설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정제두는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02 정약용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그는 인의예지가 선천적으로 완성된 덕이 아니며, 측은·수오·사양·시비의 마음을 현실 속에서 확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은 영지의 기호와 자주지권을 지닌 존재이므로, 선을 선택해 실천한 책임과 공로는 행위자 자신에게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사단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확충하고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단을 단순히 덕의 실마리로 보거나 덕이 이미 마음 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은 옳지 않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성리학과 정약용의 사상 비교

구분	성리학	정약용
인간 본성	본성은 곧 이치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덕이 내재해 있음	본성은 선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임
사단	사단은 마음속에 내재한 사덕이 드러나는 단서	사단은 사덕을 형성해 가는 시작
사덕	사덕은 인간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음	사덕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됨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② 13 ② 14 ⑤
15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가): 자주지권, (나): 인간(자신)

01 원효의 화쟁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불교 종파 간의 다툼을 비판하면서 겉으로는 모두 달라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효는 형식과 교리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ㄱ. 원효는 진여문과 생멸문을 서로 별개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두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ㄴ. 원효는 각 종파가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가 서로 다르다고 보지 않았으며, 드러나는 표현과 설명 방식은 달라도 근원은 하나라고 보았다.

02 원효와 의천의 사상

갑은 원효, 을은 의천이다. 원효는 모든 불교 이론이 일심(一心)에 기초한 깨달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종파 간 대립을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의천은 교리 공부와 선정 수행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바로 알기 ④ 의천은 선종이 아니라 교종을 중심으로 교선 통합을 이루고자 하였다.

03 지눌의 돈오점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지만 오랜 습기로 인해 가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돈오한 이후에도 선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지 않고, 청정한 상태로 보았다. ③ 습기는 돈오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배어 버린 나쁜 버릇과 집착에 해당한다. ④ 지눌에 따르면 돈오는 경전 공부에만 매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성품을 문득 깨닫는 직관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눌은 선정과 교학의 균형 잡힌 수행을 강조하였다. ⑤ 지눌은 돈오 직후에 나쁜 습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보지 않고, 점수를 통해 점차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04 의천과 지눌의 사상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과 지눌은 공통적으로 수행이나 이해의 측면에서 극단을 경계하고 조화를 강조하였다. 다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통합을 추구하였고,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바로 알기 ① 지눌은 돈오 이후에 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② 의천과 지눌은 교종과 선종이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가 다르다고 보지 않았다. ③ 의천과 지눌 모두 교리 공부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선정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④ 지눌은 평범한 사람도 돈오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곧바로 완전한 해탈에 이른다고 보지 않았다. 불성을 깨달은 이후에도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점진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05 혜능과 지눌의 사상

자료 분석

핵심 혜능은 단번에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반면, 지눌은 깨달은 뒤에도 오래된 습기를 제거하는 점진적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어.

갑: 자신의 본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혜능** 부처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니, 점진적 단계라는 것은 없다.

을: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모든 감각 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지 **지눌** 만 그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본래 자신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홀연히 깨달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깨달음과 수행이 단박에 완결된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보아, 깨달음 이후 별도의 점진적 수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지눌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깨닫는 돈오 이후에도 실제 생활에서 배어나오는 습관인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깨달은 뒤에도 그 지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꾸준히 마음을 닦아 나가는 점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A에는 혜능은 '예', 지눌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혜능과 지눌 모두 참선을 통해 새로운 불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재된 불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혜능과 지눌 모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ㄴ. 혜능과 지눌 모두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혜능과 지눌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06 이이의 이통기국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이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이는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인 이(理)는 통하고, 그 그릇이 되는 기(氣)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국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인간의 본연지성은 동일하지만, 사람마다 지닌 기질이 다르므로 차이가 생기며, 이로 인해 이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짐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② 이이는 이를 스스로 발하는 주체로 보지 않고 기만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가 스스로 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황의 입장이다.

07 이황의 사단 칠정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순수한 도덕 본성이 발현된 감정이고, 칠정은 기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감정이다. 한편 그는 학문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핵심적 수양으로 경(敬)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이황에 따르면 천리는 만물에 두루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이다. ㄴ. 이황은 기보다 이를 더 근본적이고 존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08 이이와 이황의 이기론

대화 속 사상이 갑은 이이이고, 을은 이황이다. 두 사상가는 이와 기가 논리적으로는 엄격히 구분되어 서로 섞일 수 없다는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구체적인 사물 속에서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의 원칙 또한 인정하였다. 이 중 이이는 이기불상리에 더욱 주목하였고, 이황은 이기불상잡을 더욱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기가 아니라 이가 운동성이 없다고 보았다. ② 이이는 오직 기만 발할 수 있으며, 사단 역시 기가 발한 감정이라고 보았다. ④ 이황은 칠정을 모두 악한 감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다만 칠정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⑤ 이황에게 이는 하늘의 이치이자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다. 이는 그 자체로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기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본질이 악하게 변할 수 없다.

❖ 이견 꼭 알기! 이이와 이황의 이기론

- 이기불상리 강조 + 이기지도 + 이통기국 → 이이
- 이기불상잡 강조 + 이귀기천 + 이기호발 → 이황

09 이이와 이황의 심성론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모든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 위에 올라탄다고 보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였으며,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황은 사단의 근원은 이로, 칠정의 근원은 기라고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존귀한 이가 발하여 나타난 사단과 선악이 혼재된 기가 발하여 나타난 칠정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가치의 원천인 이의 절대적 순선함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① 이이는 이가 아니라 기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② 이이에 따르면 보편적인 이는 어디에나 통하지만 이를 담는 기는 사물에 따라 제한되므로, 기의 차이에 의해 만물의 다양성이 결정된다. ④ 이황은 기뿐만 아니라 이도 운동성이 있어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⑤ 이황은 이를 기에 종속되거나 기에 의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기를 주재하는 존귀한 원리로 파악하였다.

10 이황의 수양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그는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을 위한 수양으로 경(敬)을 강조하였다. 경은 마음이 항상 도덕 원리인 '이'를 고요하게 성찰하는 것이다. 경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는 주일무직, 정제엄숙, 상성성이 있다. 주일무직은 마음을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정제엄숙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이며, 상성성은 정신을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알기] ㉔. 정제두와 왕수인이 강조한 수행 방법이다.

11 조식의 경의 사상

제시된 대화 속 스승은 조식이다. 조식에 따르면 경은 내면을 바르게 하는 수양의 태도이고, 의는 그러한 수양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실천적 덕목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 조식은 학문이 이론적 측면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일상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② 경과 의는 현실의 사회적 정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③ 의는 내면을 고요히 유지하는 공부보다 외적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덕목이다. ⑤ 조식은 내면 수양과 외적 실천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지, 지식을 완성한 뒤에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2 정제두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

정제두는 격물치지를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성리학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격물치지를 내마음의 부정한 것을 바로잡아 본래 지니고 있는 도덕적 자각 능력인 양지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13 정약용의 자주지권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자주지권을 부여받아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은 개인이 일상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실천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완성된 형태의 선한 본성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주희의 입장에 가깝다. ⑤ 정약용은 인간의 감각적 욕구(형구의 기호)를 도덕적 삶을 위해 무조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생존하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4 정약용의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을 자주지권을 지닌 주체적 도덕 행위자로 간주하였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일 뿐이며, 더 또한 일상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은 생계를 위해 정직함 대신 편법을 택한 (나)의 기택 가족이 영지의 기호 대신 생존과 물질적 욕구에 부합하는 형구의 기호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자주지권을 잘못 행사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양지는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인 도덕 능력을 의미한다. ② 정약용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④ 성리학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원인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15 주제: 의천과 지눌의 수행 방법

[예시 답안]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과 지눌은 모두 이론적 공부와 실천 수행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두 측면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갑은 의천, 을은 지눌임을 밝히고, 의천과 지눌이 제시한 수행 방법의 공통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리 공부와 실천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라고만 쓰거나, 두 사상가가 제시한 수행 방법의 공통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행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게 서술한 경우

16 주제: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예시 답안]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감정으로, 칠정을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감정으로 설명하며, 두 감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타서 드러나는 감정이며, 사단은 칠정과 별개의 감정이 아니라 칠정 가운데 순정한 측면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상	갑은 이황, 을은 이이임을 밝히고,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두 사상가의 관점 차이를 감정의 연원을 포함하여 명확히 비교한 경우
중	갑은 이황, 을은 이이임을 밝히고, 사단과 칠정의 관계에 대한 두 사상가의 관점 차이를 서술하였으나, 감정의 연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하	갑은 이황, 을은 이이라고만 쓴 경우

17 주제: 정약용의 자주지권

[답] (가): 자주지권, (나): 인간(자신)





서양 윤리 사상

01 / 윤리적 삶에 대한 서양의 물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84쪽

- 01 (1) × (2) ○ (3) ○ 02 보편주의 03 (1) L (2) ㉠ (3) E
04 (1) 이성 (2) 산파술 05 이데아 06 ② 07 ⑤ 08 ②
09 ④

01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

(1)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시대나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인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06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에서는 도덕 판단이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알기] ①, ③, ④, ⑤ 윤리적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07 플라톤의 사상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바로 알기] ⑤ 플라톤은 욕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욕구를 조절할 때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08 덕 윤리와 중용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을 발휘하는 기준으로 중용을 강조하였다.

09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이성에 따라 형성되는 성품으로 보았으며,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았다. 또한 덕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이를 선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쾌락 극대화의 수단이나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 품성적인 덕은 중용의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궁극적 행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으로 성품화되어야 형성된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85~87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7 ①
08 ② 09 ⑤ 10 ① 11 ② 12 ⑤

01 윤리적 상대주의의 특징

(가)에 들어갈 말은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도덕 기준이 개인이나 사회의 관습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02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론

그림의 강연자는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며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 개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중시하므로, 악행이 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본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부정한다. ②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의 존재를 부정한다. ④, 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 진리나 도덕규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 **미션 꼭 읽기!**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특징 비교

- 보편적 진리를 부정함 + 문화와 상황에 따라 도덕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윤리적 상대주의**
- 보편타당한 도덕 판단의 기준과 규범이 있음 + 인간은 이성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윤리적 보편주의**

03 소크라테스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그는 모든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선이 무엇인지 참으로 안다면 자발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악행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⑤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미션 꼭 읽기!** 소크라테스 사상의 특징

참된 앎을 가짐 + 덕을 실천함 → **소크라테스가 바라본 행복한 삶**

04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비교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을은 플라톤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진정한 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던 플라톤은 이성을 활용하여 보편적 선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⑤ 플라톤의 입장이다. ④ 플라톤이 반대할 입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만이 통치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05 플라톤이 바라본 정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은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하며,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는 절제·용기·지혜의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바로 알기] ㄱ. 플라톤은 영혼의 욕구하는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의 인도와 통제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의 역할이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가 아니라, 각자가 타고난 천성과 소질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미션 꼭 읽기!** 플라톤이 바라본 정의로운 인간과 국가의 특징

- 인간의 영혼을 이성, 욕구, 기개로 나눈 + 이성으로 욕구와 기개를 다스림 → **플라톤이 바라본 정의로운 인간의 특징**
- 국가를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로 나눈 + 각 계층의 사람들이 본성에 맞는 역할만을 수행함 → **플라톤이 바라본 정의로운 국가의 특징**

06 플라톤의 이데아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유한 동굴에서 그림자는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사물에 해당하며 좋은 이데아에 해당하는 태양을 직접 바라보고 인식하는 존재는 통치자의 자격을 갖춘 존재이다.

[바로 알기] ㄱ. 플라톤은 ㉠(동굴 속)을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현실 세계(현상계)에 비유하였다. ㄴ. 플라톤은 ㉡(동굴 밖)을 감각이 아닌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계로 보았다.

07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자료 분석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적절하지 않다. 마땅히 그래야 할 대상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때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이 중용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산술적이거나 수치적인 개념에서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대적 감정 또는 행동을 중용이라고 보았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행복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이는 곧 덕과 일치하는 이성적 활동을 의미한다.

[바로 알기]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를 선택하고 행하려는 실천적 의지와 성품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중용이라는 객관적 도덕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중용은 각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마땅하고 적절한 상태인 상대적 중용을 의미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이성적 활동을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활동으로 구분하면서도,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과 습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미션 꼭 읽기!** 중용의 특징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 + 습관화를 통해 형성 →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중용의 특징**

08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가 현실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하면서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현실 밖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며 진리는 현실에 존재한다고 강조하였지만 앎을 갖춘 사람이라도 습관이 형성되지 않거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올바른 행동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 **미션 꼭 읽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 모든 행위는 행복을 목적으로 가짐 →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

09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 행복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한두 번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여 습관화할 때 형성되며, 이러한 덕에 따른 활동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10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가 덕에 대한 참된 앎이 곧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 ㉡는 덕을 지식과 동일시하고 무지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다. ㉢, ㉣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미션 꼭 읽기!** 덕의 실천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 덕은 지식이며 행복임 + 알면 곧 행하게 됨 → **소크라테스의 입장**
-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임 + 덕의 실천에는 의지와 습관이 필요함 →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11 플라톤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제시된 글의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스승님'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 **미션 꼭 읽기!** 현실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특징

선은 별도 세계에 있지 않음 +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함 →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특징**

1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다른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윤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며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고,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이성으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며 철인의 통치와 역할 분담을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진리와 행복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지성적 덕)가 올바른 중용의 상태를 판단하여 품성적 덕의 형성을 돕고, 올바른 성품(품성적 덕)이 지성적 덕의 발휘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성, 기개, 욕구로 구분하였다. ④ 소피스트들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한 반면,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하였다.

◆ **미션 꼭 알기!** 공동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임 + 타인과 더불어 덕을 실현할 때 행복에 이름 → **공동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88쪽

01 주제: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론

예시 답안 프로타고라스가 제시한 인간 척도론은 모든 존재와 가치의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즉, 진리와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리·가치가 상대적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진리의 상대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인간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내용만을 단순히 서술한 경우

02 주제: 소크라테스의 참된 앎

예시 답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악을 선택하지 않으며, 앎에 따라 덕을 실천하게 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악행의 원인이 무지임을 밝히고, 앎과 선의 관계를 덕의 실천과 연관 지어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무지와 악행의 관계만 단순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플라톤이 바라본 인간의 영혼

(1) **답** 이성, 기개, 욕구
 (2) **예시 답안** 플라톤은 영혼에서 이성이 다른 부분을 통제하고,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영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태가 영혼의 이상적인 상태이다.

채점 기준	
상	이성이 다른 부분을 통제하고 각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플라톤이 바라본 영혼의 이상적 상태가 실현되는 과정을 핵심어 중 일부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1) **답** 좋음(선)의 이데아
 (2) **예시 답안** 중용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는 국가 안의 모든 것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철인왕이 지배하는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이자 국가 전체가 조화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중용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 안의 모든 것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철인왕이 중용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단순히 서술한 경우

05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1) **답** 중용
 (2)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중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덕이 실현되지 않으며, 품성적 덕은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중용에 대한 알만으로는 덕이 실천되지 않으며, 도덕적 행동의 반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또 다른 노력이 의지에 따른 실천과 중용의 습관이라는 내용만을 단순히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089쪽

01 ③ 02 ③

01 덕의 실천에 대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료 분석

핵심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겸손한 자세로 보편적 진리에 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갑: 나는 먼저 나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소크라테스 고 생각한다. 참된 앎을 지닌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며,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된다.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을: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며 하루가 봄을 만든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듯 하루나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
 텔레스고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알면 실천할 수 있다는 지덕복일치를 주장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천을 위해 참된 지식과 함께 의지와 중용의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실천을 위해 덕에 대한 깨달음을 넘어 행위하고자 하는 의지, 습관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이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이성과 덕에 대한 서양 사상가의 관점

소크라테스	-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 탐구 - 자신의 무지를 자각 → 대화(문답)를 통해 참된 앎에 도달 - 참된 앎 = 덕 → 알면 반드시 실천(지덕일치)
플라톤	- 이성을 통해 이데아 인식 감각 세계는 불완전, 참된 실재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 - 이성으로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자만이 올바른 판단과 통치 가능
아리스토텔레스	- 이성은 인간 고유의 기능 → 행복 실현의 기준 - 이성을 바탕으로 중용 판단 →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 선택 - 앎만으로 부족, 의지와 습관을 통해 덕을 완성

02 이성을 윤리의 바탕으로 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자료 분석

핵심 플라톤은 좋음(선)의 이데아는 사물의 존재와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 **갑: 생성되는 것이 아니면서 생성하는 것 그 자체인 것은 좋음의 이데아뿐이다.** 생성되는 것이 본질을 갖게 되는 것도 역시 좋음의 이데아에 의해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을: 덕에 따른 행위는 그 성질만으로 정의롭거나 절제된 것이 아니며, 행위자의 마음 상태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즉 알 **행위의 원칙과 함께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하는 현대 덕 윤리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성이 기개와 욕구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절제의 덕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 성취와 자아실현은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알기 ㄱ. 플라톤은 영혼의 욕구하는 부분이 이성적인 부분의 인도와 통제를 받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윤리를 단순한 생존과 유용성을 위해 다수가 임의로 만든 가변적 규범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내재한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토대로 보았다.

02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92쪽

01 (1) ○ (2) ○ (3) × 02 평정심 03 금욕주의 04 (1) ⊕
(2) ⊕ (3) ⊖ 05 ④ 06 ⑤ 07 ② 08 ③

01 에피쿠로스학에서 강조한 정치 활동

(3) 에피쿠로스학파에서는 은둔하는 삶을 강조하며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05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에피쿠로스학파에서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인 평정심에 이르는 것을 진정한 쾌락이자 행복으로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치 활동에서 벗어나 자연적·필수적 욕구만을 충족하는 삶이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학파는 이성적 인식을 통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06 에피쿠로스의 입장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운명, 신,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해진 운명은 없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 인간의 삶에 관여할 리가 없으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07 스토아학파의 입장

스토아학파에서는 정념에서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감정에 초연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등 좋은 감정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08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가 바라본 이성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을 얻거나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이자 모든 존재의 본질인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93~9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⑤ 11 ② 12 ④

01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

헬레니즘 시대의 거대한 제국의 신민은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었고 정치적 참여가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개인의 내면과 평온한 삶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가 등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고대 그리스 시기의 도시 국가(폴리스)에 대한 특징이다. ⑤ 계속된 전쟁과 외적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였다.

◆ **미전 꼭 읽기!**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사상의 특징

폴리스 붕괴 + 시민의 정치 참여 약화 + 정치적 불안 증가 + 개인의 내면과 평온한 삶 중시 → **에피쿠로스학파·스토아학파의 등장 배경**

02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욕구의 성격을 구분하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절제하여 충족하는 검소한 삶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⑤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구분하여 선택해야 하며, 무분별한 욕망 충족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미전 꼭 읽기!** 에피쿠로스학파에서 바라본 쾌락

- 쾌락은 선 + 고통은 악 →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 욕구를 구분하여 선택 + 불필요한 욕망 절제 → **참된 쾌락의 조건**

03 키레네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관점 비교

갑은 키레네학파, 을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이다. 키레네학파에서는 현재의 강렬한 감각적 쾌락을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피쿠로스학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켜 참된 쾌락을 방해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처럼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쾌락을 얻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한다.

04 에피쿠로스학파에서 바라본 욕구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를 진정한 쾌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욕망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에피쿠로스학파는 명예나 부와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05 에피쿠로스학파에서 바라본 신과 죽음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신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불안을 낳는다고 보고, 신은 인간에게 관여하지 않으며 죽음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버리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06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그는 모든 일이 운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외적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이며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③ 스토아학파에서는 모든 외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 **미전 꼭 읽기!** 스토아학파 사상의 특징

이성에 따른 삶 + 자연의 질서에 따름 + 내면의 평정 유지 → **스토아학파의 핵심 사상**

07 아우렐리우스의 주장

자료 분석

지적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이성 또한 공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이성,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규정하는 이성 역시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마땅한 위치와 역할을 정해주고, 이에 따라 각 개인에게는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림의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공통의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평등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③ 스토아학파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의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평가한다. ⑤ 스토아학파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관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그는 외부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 질서로 보고 이를 이성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스토아학파에서는 정념을 활용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다. ② 외부 조건의 변화에 행복을 두는 입장으로, 스토아학파의 입장과 맞지 않다. ③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을 통해 정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학파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스토아학파에서 바라본 정념의 특징

스토아학파는 이성에서 벗어난 긍정적·부정적 감정 모두 정념으로 보았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정념은 이성에 복종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과도한 충동이며, 정념에 휘둘리는 상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10 분노에 대한 세네카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세네카이다. 그는 분노를 이성을 약화시키는 비이성적인 정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리 억제하고 제거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세네카는 분노를 이성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감정으로 보았다. ② 세네카는 처벌을 행할 때 분노를 배격하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③ 세네카는 정념에 권한을 허용하는 순간 이성이 무력해진다고 보았다. ④ 세네카는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도 분노가 아닌 이성적 판단과 태도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핵심 사상 비교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는 각각 다른 의미로서의 이성을 중시하였으며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의 평정심을, 스토아학파는 정념에서 해방되는 부동심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다.

[바로 알기] 에피쿠로스학파에서 강조하는 이성이란 욕구를 분별하고 자연과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스토아학파에서 강조하는 이성이란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다스리는 보편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 **미션 꼭 알기!**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행복

- 몸의 고통이 없음 + 마음의 불안이 없음 → **에피쿠로스학파의 행복**
- 정념에서 벗어남 + 이성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외부의 일을 수용함 → **스토아학파의 행복**

12 정치 활동에 대한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입장 비교

자료 분석

갑: 정치적 야망을 통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좌절과 조급함, **에피쿠로스** 다툼과 집착, 그리고 분노를 낳을 뿐이다. 친구들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개인의 이익은 공동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인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공동의 이익은 자연에 부합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 스토아학파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애에 기반한 공동선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키케로이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적 활동을 멀리하는 삶을, 스토아학파에서는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바로 알기] ㄷ. 가까운 사람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공동선을 중시한 스토아학파의 관점에서 벗어난다.

◆ **미션 꼭 알기!**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삶

- 정치적 야망과 명예 추구 지양 + 친구와의 평화로운 삶 중시 →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
- 공동선에 부합하는 삶 +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 전체에 대한 의무 강조 → **스토아학파의 입장**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96쪽

01 주제: 내면의 행복을 추구한 배경

[예시 답안] 헬레니즘 시대에 도시 국가가 해체되고 거대 제국이 형성되면서 당시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제국의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계속된 전쟁으로 불안이 커지고 정치적인 참여도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개인의 내적 행복과 평온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채점 기준	
상	정치적 권력이 제국으로 확대되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졌고, 전쟁과 같은 외적 불안이 지속되었음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도시 국가가 해체되었다는 내용만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에피쿠로스학파가 강조한 이성에 따른 이해

[예시 답안]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서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죽음은 감각의 소멸이므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채점 기준	
상	에피쿠로스가 바라본 신과 죽음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신과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와 같이 단순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1) **답** 에피쿠로스

(2) **[예시 답안]** 에피쿠로스는 필수적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불필요한 욕망은 절제해야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죽음은 감각과 고통이 없는 상태이므로 죽음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죽음과 운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을 핵심 어구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스토아학파에서 강조한 이성

(1) **답** 이성

(2) **[예시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이다. 그는 우주 전체가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도 인간의 본성에 맞는 운명이므로, 자신의 운명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자연의 질서가 각 존재의 본성에 맞는 일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하	자연의 질서나 운명에 대한 서술 없이 단순히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만을 서술한 경우

05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에서 바라본 이상적 정치 활동

[예시 답안] (가)의 에피쿠로스학파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정치 활동을 피하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은둔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반면 (나)의 스토아학파는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 모든 인간이 세계 시민임을 자각하고, 자연법에 따라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에피쿠로스학파에서는 은둔하는 삶을, 스토아학파는 세계 시민주의와 자연법에 따른 적극적인 정치 활동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두 학파의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은둔, 참여)은 비교했으나, 각 학파의 핵심 근거(세계 시민주의, 자연법 등)를 일부 누락하여 서술한 경우
하	두 학파의 입장에 대해 '정치를 피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와 같이 단순히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97쪽

01 ② 02 ②

01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에서 바라보는 삶의 태도

자료 분석

핵심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원자의 결합으로 보고,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어.
 gap: 우주에는 원자와 공간만이 존재하며, 인간 역시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므로, 죽음은 이 결합이 해체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라짐 자체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을: 인간은 연출가가 만든 연극의 배우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지나 말 없는 사람과 같은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다. 다만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 **스토아학파는 인간이 외적 조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주어진 역할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어.**

gap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보았으며, 죽음은 이러한 결합이 해체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감각과 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 자체를 경험할 주체도 사라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오히려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불필요한 욕망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이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그는 외적 조건이나 결과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에 집착할수록 불안과 고통이 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적 조건은 담담히 받아들이되, 자신의 판단과 태도처럼 통제 가능한 내적 영역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태도를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모든 감각이 소멸한 상태로 보아 선도 악도 아닌 상태로 파악하였다. ③ 에픽테토스는 인간 내부의 판단과 태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고통이 그 사건에 대한 인간의 판단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⑤ 에피쿠로스는 자연의

이치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반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죽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고대 서양 학파의 입장

에피쿠로스학파	- 인간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 → 죽음은 결합의 해체에 불과 - 죽음 이후에는 감각과 의식이 존재하지 않음 → 선·악의 대상이 아님 -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됨 - 죽음의 두려움을 없앴 → 마음의 평정(아타락시아) 실현
스토아학파	- 인간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 → 역할 자체는 선택 불가 - 외적 조건은 통제할 수 없음 →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함 -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판단과 태도 → 이성으로 통제해야 함 -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 정념에서 벗어나 부동심의 상태 도달

02 이성과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픽테토스의 입장

자료 분석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중용을 강조하였다.
 gap: 절제는 품성적 덕으로서 지나침과 부족에 의해 훼손되며, 중용을 통해 유지된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율되는 바에 따라 즐거움을 적절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위할 때 두려움이나 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핵심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 두려움과 같은 정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어.

gap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에픽테토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를 포함한 덕이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에픽테토스는 온갖 욕망과 감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픽테토스에게 이성에 따른 삶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스토아학파도 이성적 삶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스토아학파 역시 세계 시민으로서 공동선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④ 모든 사물과 행위가 목적을 지닌다는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이다. ⑤ 선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된다는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03 / 신앙과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02쪽

- 01 (1) L (2) C (3) 7 02 (1) O (2) O (3) X 03 (1) 이성
(2) 예정설 04 (1) L (2) 7 (3) C 05 5 06 5 07 4
08 5

02 아퀴나스의 완전한 행복

(3) 아퀴나스에 따르면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

05 황금률의 특징

예수의 황금률은 그리스도교 윤리의 근본 원리로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가르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용서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태도도 황금률을 실천하는 태도이다.

06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고 사랑의 질서를 따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지혜·용기·절제·정의와 같은 덕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였으며, 믿음·소망·사랑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가장 중요한 덕으로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독립적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으로 보았다. ②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랑은 도덕적 의무이다. ③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속적 재물이나 권력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보았다.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07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아퀴나스가 제시한 자연법 윤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원법의 일부이다.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질서, 행위를 비롯하여 행위의 의도를 교정하고 설명한다.

[바로 알기] 7. 자연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법이 아니라 신의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법이다. 8.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보편적인 섭리는 영원법이다.

08 칼뱅의 사상

칼뱅은 모든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신앙의 실천이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칼뱅은 신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③ 칼뱅에 따르면 직업적인 성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징표이다. ④ 칼뱅은 직업은 신이 맡긴 임무이며 노동은 신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03~105쪽

- 01 ④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④ 11 ① 12 ①

01 예수가 말하는 사랑의 윤리

그림의 사상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⑤ 예수는 율법의 형식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그 내면에 담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보았다. ②, ③ 예수는 신의 사랑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02 신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향한 사랑이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과의 합일은 신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세가 아닌 천상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신과의 합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03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사상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플라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을 통한 구원으로만 참된 행복, 즉 지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상의 나라에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충족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8.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원죄를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04 아퀴나스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성 안에 신의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7.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이 영원법에 근거한다. 8.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신과의 완전한 합일에서 찾았으며, 이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완성된다고 보았다.

05 아퀴나스의 자연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그는 인간 안에 신의 영원법이 반영된 자연법이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퀴나스는 인간이 단순한 결과나 욕구가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올바른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아퀴나스는 사회적 평가나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이성의 법인 자연법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신이 부여한 이성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신과 합일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보편타당한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미건 꼭 읽기!** 아퀴나스의 자연법

선을 실천하고 악을 피함 + 이성에 따라 행위 판단 → **자연법의 기본 계율**

06 행복에 대한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현실 세계의 질서와 목적을 중시하며 지성적·품성적·종교적 덕을 갖추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아퀴나스는 내세에서 신과의 완전한 합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인간이 지닌 이성의 활용이 자연법을 인식하고 신에게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세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선이 현실의 사물과 실천 속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07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지니며,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선을 실천할 때 자연법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은 단순히 인식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도덕규범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신의 영원법에 근거한 자연법과 이성에 의해 파악된다. ③, ④, 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 의지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08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을 위해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함께 신의 은총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성의 기능이 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모두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②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 중 일부는 이성적 논증을 통해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자연적 경향성을 자연법의 근거로 삼았다. ⑤ 아퀴나스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신의 영원법을 직접 완전히 인식할 수는 없으며, 오직 그 영원법의 일부만이 투영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09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특징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각자의 사회적 역할에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금욕을 현세적 직업 활동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노동과 직업의 가치를 재해석하였으며, 이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 **미건 꼭 읽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특징

금욕을 현세 속에서 실천 + 직업 활동과 결합 →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징**

10 칼뱅이 제시한 직업의 새로운 인식

칼뱅의 예정설에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은 직업과 노동을 신의 부르심으로 보고, 일을 통해 얻은 부를 구원의 징표로 여겼다. 이러한 태도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자본이 쌓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칼뱅은 자본 축적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고, 절제된 생활을 통해 축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칼뱅은 경제 활동을 도덕과 분리하지 않고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아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③ 칼뱅은 개인의 이익 극대화 자체보다 신의 소명에 따른 성실한 직업 수행을 중시하였다. ⑤ 칼뱅은 직업 활동과 경제 활동을 신의 소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절제와 규율 속에서 정당하게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건 꼭 읽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의 직업관

직업은 신의 소명 + 성실한 노동과 절제 강조 → **칼뱅의 직업관**

11 구원에 대한 칼뱅과 루터의 입장

자료 분석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갑: 우리는 삶의 모든 행위에서 신의 부르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은 다양한 삶의 신분과 방식들을 구분하여 각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그 순서를 정해 두었다.

을: 인간은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면죄부와 같은 외적 행위가 죄를 사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과 성서를 통해 계시된 말씀에 의지할 때에만 참된 회개와 구원이 가능하다.

↳ 오로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루터의 주장이다. 이를 '성서 중심주의'라고 말하기도 해.

갑은 칼뱅, 을은 루터이다. 칼뱅과 루터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신의 은총과 이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③, ⑤ 칼뱅과 루터는 오직 신의 은총과 이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④ 칼뱅은 직업적 성공과 부의 축적을 신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해 주는 사후적 징표로 보았다.

12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입장

자료 분석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과 인간이 사랑이나 구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 응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갑: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인간 정신은 신의 빛으로 진리를 알 수 있고, 많은 티누스 사람들은 보편적 진리에 감동한다.

을: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면죄부가 아니라 신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루터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였으며 루터는 교회나 교황의 권위가 없어 오직 믿음과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ㄷ. 루터는 믿음이 교황을 통해 전달된다고 보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는 모두 악을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으로 보았다.

◆ **미션 꼭 알기!** 악과 구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입장

- 신에 대한 사랑이 참된 덕의 기준 + 악은 선의 결핍 →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 오직 성서와 믿음을 강조 + 교회의 권위를 부정 → **루터의 입장**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06쪽

01 주제: 예수가 비판한 기존 유대교의 특징

[예시 답안] 특정 민족만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는 선민사상과 율법의 형식적 준수에만 치우치는 율법주의를 비판하였다.

채점 기준	
상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선민사상 또는 율법주의 중 한 가지만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악의 발생 원인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예시 답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보고, 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존재가 불완전해져 자연적 악이 발생하며, 인간이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질서 있는 사랑에서 벗어날 때 도덕적 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채점 기준	
상	악이 선의 결핍이라는 점과 함께 자유 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신보다 열등한 대상에 사랑을 둔 결과임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의 자유 의지 남용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악이 선의 결핍이라는 점만 단순히 서술한 경우

03 주제: 아퀴나스가 제시한 자연법

(1) **[답]** 자연법

(2) **[예시 답안]** 영원법은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의 법칙으로, 인간의 자연적 성향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된 영원법으로서,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다.

채점 기준	
상	자연법이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결과라는 점을 핵심 어구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한 경우
중	자연법과 영원법의 관계를 설명했으나 핵심 어구 중 일부를 누락하여 서술한 경우
하	자연법과 영원법의 인과 관계를 오인하여 서술한 경우

04 주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1) **[답]** 루터

(2) **[예시 답안]** 칼뱅은 구원이 신의 예정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각자의 직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세속적 직업 활동과 금욕적 태도로 부를 축적하는 종교적 생활 방식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채점 기준	
상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이 세속적 금욕주의를 거쳐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05 주제: 만인 사제주의의 의의

[예시 답안] 만인 사제주의에 따르면 신앙은 종교 시설이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외적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과 직접 맺는 관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종교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며, 외적 형식보다 개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채점 기준	
상	신앙이 외적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개인과 신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 활동 방식의 시사점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외적 형식보다 내적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만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시사점을 연결하지 않고 단순히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07쪽

01 ⑤ 02 ⑤

01 신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입장

[자료 분석]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고, 완전한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이 인간의 불완전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갑: 인간은 최고선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모든 유한한 선은 아우구스티누스 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가치를 가진다. 악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최고선을 떠나 하위의 선을 잘못 사랑할 때 발생하는 결핍이다. 을: 인간은 이성을 통해 최고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으며, 플라톤 이러한 인식은 영혼을 질서 있게 하여 올바른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악은 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와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인간이 통치 행위를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진정한 선과 행복에 이하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과 지성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플라톤의 입장은 아우구스티누스 관점에서 신의 은총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③, ④는 플라톤의 관점에서도 긍정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이 불완전성은 더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02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자료 분석

갑: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을 지향하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지성적 덕과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발휘와 덕의 형성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어.**

을: 인간은 내세에서 신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연적 덕을 함양하는 한편 믿음·소망·사랑과 같은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하며, 신의 존재는 이성적·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합일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어.**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의 은총과 종교적 덕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신 중심의 행복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은 내세에서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의 합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삶과 행복한 삶을 분리하지 않고 덕에 따른 활동을 행복으로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 공통의 입장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덕의 실현을 중시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행복을 신앙이나 귀의로 설명하지 않는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행복에 대한 서양 사상가들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 목적: 행복(최고선) • 성격: 현세에서 실현 • 조건: 이성의 발휘 + 덕의 실천 • 덕: 지성적 덕 + 품성적 덕 • 특징: 인간의 활동 중심
아퀴나스	• 목적: 완전한 행복 • 성격: 내세에서 완성 • 조건: 자연적 덕 + 종교적 덕 + 신의 은총 • 덕: 자연적 덕(지성·품성), 종교적 덕(믿음·소망·사랑 등) • 특징: 신과의 합일 중심

04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12쪽

01 (1) L (2) 7 (3) C **02** (1) 이성적 (2) 조건부 의무 **03** (1) L
(2) 7 (3) C **04** (1) O (2) X (3) O **05** 선호 공리주의
06 5 **07** 2 **08** 3 **09** 4

04 칸트의 의무론

(2)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06 의무론의 특징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와 의무를 중시하며,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의무론에 따르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바로 알기 ① 의무론은 최대 다수의 행복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의무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② 의무론은 상황에 따라 도덕규범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고 보편적 도덕 법칙의 존재를 강조한다. ③ 의무론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여부를 도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④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와 의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07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은 보편 법칙의 정식과 인간 존중의 정식에 따라야 한다. 반면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원칙은 가언 명령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L.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은 이성적 존재가 인식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다. R.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건이 붙은 원칙은 가언 명령에 해당한다.

08 공리주의의 원칙

공리주의에서는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다고 본다.

09 규칙 공리주의의 특징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개별 행위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큰 공리를 가져온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13~115쪽

01 5 **02** 2 **03** 3 **04** 4 **05** 4 **06** 1 **07** 4
08 2 **09** 3 **10** 2 **11** 2 **12** 5

01 의무론의 관점에서 옳은 행동

제시된 사상은 의무론이다. 의무론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한다. 따라서 A의 행동은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므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

[바로 알기] ① 의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② 의무론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은 결과만으로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의무론은 많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한다. ④ 의무론은 동정심과 같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02 칸트 윤리 사상의 특징

그림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평가하므로,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도덕 법칙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③ 칸트는 인간이 이성과 감성을 함께 지녔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선의지가 그것의 유용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 따른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03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 비교

(가)는 가언 명령, (나)는 정언 명령이다. 가언 명령은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한 조건적 명령이고, 정언 명령은 목적과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인 도덕 명령이다. '처벌을 피하려면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문장은 가언 명령의 예시이다.

◆ 이견 꼭 알기! 칸트가 바라본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 무조건적 도덕 법칙 + 보편화 가능성 요구 +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인간 존중의 정신 → 정언 명령
-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명령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 지침 → 가언 명령

04 칸트의 윤리 사상에 대한 로스의 비판

자료 분석

예를 들어 살인자가 내 방에 숨어 있는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사람을 해하지 마라.'라는 의무와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때 로스에 따르면 '사람을 해하지 마라.'라는 것이 실제 의무가 되며,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조건부 의무가 돼. **갑:** 만약 도덕적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더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더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 의무로 드러난다.

을: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갑은 로스, 을은 칸트이다. 로스는 여러 의무가 충돌할 때 상황을 고려하여 더 중요한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칸트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도덕규범의 기준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② 칸트와 로스 모두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③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보편적 법칙에 따라 판단하려 하였다. ⑤ 로스는 개인의 감정이나 직관이 도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이견 꼭 알기! 의무에 대한 칸트와 로스의 관점

- 보편적 도덕 법칙 + 절대적 의무 강조 → 칸트의 관점
- 의무 충돌 시 더 강한 의무 선택 → 로스의 관점

05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는 점에 근거하여,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도덕의 원리로 보았다.

[바로 알기] ㄹ. 벤담은 지속성, 강도, 확실성, 범위 등을 기준으로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견 꼭 알기! 양적 공리주의의 특징

쾌락과 고통이 윤리의 기준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쾌락의 양만을 강조 → 벤담 공리주의의 특징

06 밀의 질적 공리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보고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위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의 보편적 도덕 원리를 주장하였다.

◆ 이견 꼭 알기! 질적 공리주의의 특징

쾌락의 질적 차이 인정 + 정신적 쾌락 우위 → 밀 공리주의의 특징

07 질적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고급 쾌락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였고, 지적·정신적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밀은 만족한 돼지의 삶보다 불만족한 인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였다. ②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고유한 질적 차이도 함께 인정하였다. ③ 밀은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사회적 관습이 아닌 유용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⑤ 밀은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동기나 의무가 아닌 그 행위가 낳은 결과로 평가하였다.

08 공리주의의 유형

(가)는 질적 공리주의, (나)는 선호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 **미건 꼭 읽기!** 질적 공리주의와 선택 공리주의의 특징

- 쾌락의 질 기준 판단 → **질적 공리주의**
- 모든 존재의 선택 고려 → **선택 공리주의**

09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비교

같은 행위 공리주의, 이른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공리주의는 공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결과를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바로 알기 ①, ⑤ 공리주의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리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행위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④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미건 꼭 읽기!** 공리주의의 특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 + 공리를 최대화 → **공리주의의 공통된 특징**

10 공리주의의 유형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

같은 행위 공리주의, 이른 규칙 공리주의, 병은 선택 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른다.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개별 행위마다 공리를 계산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 판단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 **미건 꼭 읽기!**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특징

- 개별 행위마다 공리 계산 → **행위 공리주의**
- 규칙 준수가 더 큰 공리 → **규칙 공리주의**

11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비교

같은 공리주의의 입장, 이른 칸트이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가져오는 행복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칸트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중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칸트는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미건 꼭 읽기!** 정언 명령에서 강조하는 칸트 사상의 특징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함 + 보편적 법칙 준수 → **칸트 사상의 특징**

12 칸트와 밀의 입장 비교

자료 분석

갑: 선의지는 어떤 결과를 낳거나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옳지 그 자체로 선택한 것이다.**

을: 쾌락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행복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공리의 원리이며, 밀은 이러한 행복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를 측정할 때, 그것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칸트, 이른 밀이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동기를, 밀은 쾌락과 고통의 질적 가치를 각각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행복이 아니라 의무를 기준으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였다. ③ 밀은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더 가치 있게 보았다. ④ 밀은 절대적 도덕 법칙이 아니라 공리를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하였다. ⑤ 칸트는 행위의 동기가 의무에 있을 때 그 행위의 가치가 높다고 보았고, 밀은 가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 쾌락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였다.

◆ **미건 꼭 읽기!** 칸트와 밀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 + 결과와 무관하며 동기가 중요함 → **칸트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
- 더 많은 공리를 가져오는 행위 +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함 → **밀이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16쪽

01 주제: 정언 명령의 정식

예시 답안 자신의 행위 준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행위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보편화 가능성 또는 인간 존중 원리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로스가 제시한 조건부 의무

예시 답안 로스는 여러 도덕적 의무가 충돌할 수 있다고 보고, 칸트의 의무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건부 의무에 따르면 상황과 도덕적 직관을 고려하여 더 중요한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칸트 의무론이 의무 충돌 상황에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로스의 조건부 의무를 통해 상황과 직관에 따라 더 중요한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경우
하	조건부 의무의 의미만 제시하거나 칸트 의무론과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의 입장 비교

(1) **답** 갑: 벤담, 양적 공리주의 / 을: 밀, 질적 공리주의

(2) **예시 답안** 밀은 인간이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통해 더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는 삶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아 ㉠과 같이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의 지적 능력을 근거로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핵심 어구 중 일부만 포함하여 쾌락의 질적 차이만 서술한 경우

04 주제: 칸트가 강조한 선의지의 특징

(1) **답** 선의지

(2) **예시 답안** 칸트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단지 의무에 맞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행위가 의무에 따르려는 선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인의 행동은 선의지가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채점 기준	
상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구분하고, 이익을 동기로 하는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의무와 선의지의 관계를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05 주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 보호

예시 답안 공리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동물 역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됨을 이해해야 한다.

채점 기준	
상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이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서술하였으나 이를 공리주의의 원리와 연결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17쪽

01 ③ 02 ③

01 칸트 윤리 사상의 특징

자료 분석

- 인간 자체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지만, 인간의 인격 속에 있는 인간성은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가 의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는 목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 법칙의 주체이며, 그 도덕 법칙은 인간이 지닌 자율적인 자유에서 비롯된다.
-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세운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만이 옳다고 할 수 있다.**
 ↳ 칸트는 도덕 법칙은 이성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나)의 가로 낱말 (A)는 '선호 공리주의'이고, 가로 낱말 (B)는 '지속성'이다. 따라서 (나)의 세로 낱말 (A)는 '선의지'이다. 칸트는 경향성을 극복하여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결단하는 자율적 의지를 선의지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바로 알기 ① 칸트는 선의지를 행복을 욕구할 때 발휘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의지로 보았다. ② 칸트는 선의지를 감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 보았다. ④ 칸트는 선의지를 조건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도덕 법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⑤ 칸트는 선의지를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성에 따른 자율적 의지로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칸트 사상의 특징

선의지	• 개념: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는 의지 • 도덕적 행위를 가능하게 함 • 결과나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선행 • 선의지에 따르는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음
정언 명령	• 조건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따라야 하는 도덕 명령 •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됨 • 보편 법칙의 정식: 자신의 행위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어야 함 • 목적의 정식: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함

02 벤담의 공리주의

자료 분석

- 핵심** 벤담은 인간의 행위,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뿐이라고 보았다.
- **자연은 인간이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고통과 쾌락이다.
 - 공리의 원리는 어떤 행위가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지, 아니면 방해하는지에 따라 그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전통적 행위 공리주의자로,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여 더 많은 쾌락을 낳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쾌락과 고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벤담은 쾌락을 강도뿐만 아니라 지속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라는 말은 밀의 표현으로,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05 / 윤리적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22쪽

- 01 실존 02 (1) ㉠ (2) ㉡ (3) ㉢ 03 (1) 이타성 (2) 감정
04 (1) ㉠ (2) × (3) ㉢ 05 ㉢ 06 ㉡ 07 ㉢ 08 ㉢

04 길리건의 배려 윤리

(2) 길리건은 기존의 도덕 이론이 정의 중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05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실존주의는 인간을 보편적 이성의 존재로 파악하는 전통 철학을 비판하며, 인간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개인의 불안·고독·선택과 같은 실존적 문제를 강조하면서 등장하였다.

06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현존재이다.

07 실용주의의 특징

실용주의는 진리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용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문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지식은 실제 삶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때 의미를 지닌다.

[바로 알기] ㄱ. 실용주의에 따르면 지식과 진리는 인간의 경험과 성장 속에서 함께 발전한다. ㄴ. 실용주의에 따르면 지식이나 진리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사실과의 일치 여부보다 쓸모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08 배려 윤리의 특징

길리건과 나딩스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정의 중심적인 윤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23~12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실존주의에서 바라본 인간의 특징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림 속 군인의 상황은 보편적 규범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이므로, 주체적 선택을 내려야 하는 인간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인간의 도덕성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진화윤리학의 관점이다. ② 실존주의는 판단을 감정이나 직관에 한정하지 않고, 구체

적인 상황 속에서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한다. ③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실존주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보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한다.

02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먼저 존재한 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의미를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설명하였다.

[바로 알기] ① 실존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을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② 실존주의는 인간을 충동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선택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본다. ③ 실존주의는 인간의 목적이 외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된다고 본다. ④ 제시문은 사물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나 인간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간까지 목적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 미션 꼭 알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특징

인간의 본질은 미리 주어지지 않음 + 주체적 선택을 통해 삶 형성 → 사르트르가 제시한 실존주의의 특징

03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비교

갑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는 선택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④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가 모두 동의할 입장이다. ②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본성 혹은 본질이 없다고 본다. ③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회복을 위해 종교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미션 꼭 알기!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특징

- 신에 귀의하여 실존 회복 →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특징
-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실존 형성 →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특징

04 제임스의 실용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제임스이다. 제임스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 사상, 문학 등이 실제 경험 속에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의 현금 가치를 인정하며 참된 것으로 보았다.

05 제임스와 듀이의 실용주의

갑은 제임스, 을은 듀이이다. 제임스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 실제 경험 속에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이 참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규범으로 보기보다 인간이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바로 알기] ⑤ 실용주의에서는 지식이나 신앙을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는다. 제임스와 듀이는 모두 경험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앙이나 문학 등도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이 지닌 실용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06 듀이와 칸트의 도덕 판단 기준 비교

갑은 듀이, 을은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규칙의 적용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탐구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수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바로 알기] ㄴ. 듀이와 칸트 모두 도덕 판단이 삶에 대한 성찰 과정과 관련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듀이는 부정, 칸트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미건 꼭 읽기!** 도덕 판단에 대한 듀이와 칸트의 관점 차이

- 도덕은 경험 속에서 수정 + 상황에 따라 변화 → **듀이가 제시한 실용주의의 특징**
- 보편적 도덕 법칙을 기준으로 판단 → **칸트 사상의 특징**

07 진화 심리학의 도덕성 이해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성은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성향과 관련이 있고, 이타성이나 협력과 같은 성향은 생존과 종족 보존에 유리한 특성이다.

[바로 알기] ㄱ.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특성을 유전적 유사성이 아닌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ㄴ. 도덕적 판단의 과정과 뇌의 작용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은 진화 심리학이 아닌 신경윤리학 및 뇌과학의 입장이다.

◆ **미건 꼭 읽기!** 진화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도덕성의 형성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타적 행동 + 도덕성 형성 → **진화 심리학**

08 하이트와 다윈의 도덕성 이해

갑은 하이트, 을은 다윈이다. 하이트는 도덕 판단이 이성적 추론보다 감정과 직관에 의해 먼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다윈은 인간이 동료에 대한 애정과 공감과 같은 사회적 본능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하이트는 도덕 판단이 감정과 직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② 하이트는 뇌 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덕 판단을 설명하였다. ③ 두 사상이 모두 도덕 판단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도덕 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⑤ 다윈은 공감과 애정의 본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 **미건 꼭 읽기!** 도덕성의 형성에 대한 하이트와 다윈의 관점

- 도덕 판단은 감정·직관에 의해 형성됨 → **하이트의 주장**
- 공감과 애정의 본능이 도덕성의 기초 → **다윈의 주장**

09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책임 주체가 아니라 보호 대상이며, 책임은 오직 현세대에게 있으므로 현세대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알기] ㄱ. 요나스는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현세대의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다. ㄴ.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보다 그 기술이 가져올 최악의 영향과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미건 꼭 읽기!** 요나스의 책임 윤리

미래 세대까지 책임의 범위 확대 + 자연까지 책임의 범위 확대 + 현세대 인간의 일방적 책임 → **요나스가 제시한 책임 윤리의 특징**

10 칸트와 요나스의 공통점

갑은 칸트, 을은 요나스이다. 칸트와 요나스는 모두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행위 원리를 정언 명령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칸트와 요나스는 모두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의무론을 강조하지만, 요나스는 행위의 미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③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뿐 자신을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④ 칸트와 요나스는 모두 인간다운 삶과 생명의 지속을 추구하므로 인위적인 제계를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다.

◆ **미건 꼭 읽기!** 칸트와 요나스의 정언 명령

- 보편화 가능성 + 이성적 윤리의 기준 + 동기에 초점 → **칸트의 정언 명령**
- 책임을 강조함 + 실질적 윤리의 기준 + 미래의 결과에 초점 → **요나스의 정언 명령**

11 길리건의 배려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도덕 판단을 권리·규칙 중심의 정의 윤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고, 관계 속 책임과 배려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환자의 감정·상태·관계 속 책임을 고려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배려 윤리와 관계가 없다. ② 칸트의 의무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계와 맥락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와 상충한다. ④ 공리주의의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유용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배려 윤리와 거리가 있다. 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종교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배려 윤리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 **미건 꼭 읽기!** 길리건의 배려 윤리

관계 속 책임 강조 + 감정과 상황 고려 → **배려 윤리의 특징**

12 나딩스의 배려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배려 윤리를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이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로 설명하며, 공감과 응답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배려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⑤ 나딩스는 진정한 배려가 완성되면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의 상호 작용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 **미건 꼭 읽기!** 나딩스가 강조한 배려 윤리의 특징

배려하는 상호 관계 속 실천 + 공감과 응답 중요 → **나딩스가 강조한 배려 윤리의 특징**

01 주제: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예시 답안 키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실존의 세 단계 가운데 종교적 단계에서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함으로써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종교적 단계에서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을 통해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에 이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종교적 단계라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참된 실존에 이르는 조건을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예시 답안 사르트르는 사물은 만들어질 때 이미 목적과 기능이 정해져 있어 본질이 먼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르트르에 따르면 사물의 경우 본질이 존재에 앞서지만,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채점 기준	
상	사물은 본질이 존재에 앞서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점을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점만 단순히 제시하거나 사물과 인간의 차이를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제임스의 실용주의

(1) **답** 현금 가치

(2) **예시 답안** 문학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때 현금 가치를 지니고, 신앙은 인간이 절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때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문학과 신앙이 인간에게 어떠한 유용성을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문학과 신앙의 구체적인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 가치가 있다.'와 같이 단순히 서술한 경우

04 주제: 요나스의 책임 윤리

(1) **답** (가): 미래 세대, (나): 자연

(2) **예시 답안** ㉠은 공포의 발견술로, 인간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미리 상상하여 그 위험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파괴적 결과를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채점 기준	
상	공포의 발견술을 제시하고, 인간 행위의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여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파괴를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임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공포의 발견술의 의미를 단순히 위험 인식으로만 제시하거나 미래 세대·자연과의 연결을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05 주제: 배려 윤리의 특징

예시 답안 배려 윤리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필요하다. 사례에서 교사 A는 학생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규칙 중심의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배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상	배려 윤리가 개인의 구체적 상황과 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필요함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배려 윤리가 현대 사회에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단순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27쪽

01 ③ 02 ④

01 인간의 참된 행복과 신의 관계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자료 분석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완성 조건을 인간의 이성이나 신과의 관계 속 결단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키르케고르 갑: 인간은 선택의 순간마다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는 실존적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인간은 참된 실존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 을: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참된 신에 이를 수 없다. 인간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며, 인간은 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사르트르 병: 인간은 어떤 설계나 목적에 따라 창조된 존재가 아닌 먼저 존재한 뒤 자신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삶의 방향을 형성해 가는 존재이다.

↳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미리 주어지지 않고 주체적 선택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아우구스티누스, 병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사상가로서 인간은 실존이 앞서는 반면 사물은 본질이 앞선다고 보았다.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참된 인간의 실현을 위해 신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며,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규정하는 모든 생각이나 존재를 부정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과 사랑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참된 삶의 실현을 위해 신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키르케고르와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알기 ㉠. A에는 키르케고르가 긍정, 사르트르가 부정의 대담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모두 인간은 사물과 달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 B에는 키르케고르가 긍정, 아우구스티누스가 부정의 대담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완

전한 회복을 위해 신과 종교에 귀의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참된 행복을 위해 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며 이상 세계에서 신과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지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비교

유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	•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이 완성된다고 보는 입장 • 인간은 불안과 절망을 겪는 실존적 존재 •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함 •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도약'을 통해 실존 회복 •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실존에 이를 수 없음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	• 신 없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입장 • 실존이 본질에 앞서며, 인간은 먼저 존재한 뒤 자신을 규정함 •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감 • 모든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

02 도덕과 진리의 가치에 관한 듀이의 입장

자료 분석

도덕의 목적은 어떤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 성장 그 자체가 도덕의 목적이 된다.

핵심 듀이는 도덕을 결과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으로 파악하며, 도덕 판단 역시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반복적 성찰 속에서 수정된다고 보았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듀이이다. 듀이는 지식이나 도덕을 인간이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경험과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4)번 문항에 대해 듀이가 가질 입장은 X이기 때문에 학생이 받을 점수는 6점이다.

[바로 알기] (1)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실천적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도덕은 경험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진리의 실현이 목적이 아니다. (2) 듀이는 도덕 원리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경험에 따라 계속 수정·발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듀이는 인간이 경험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도덕 역시 이러한 성장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4)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원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듀이의 관점과 맞지 않는다.

표단원 실력궁하기

130~133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④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③
15 중용 16 조건부 의무
17 (1) 사르트르 (2) 해설 참조

01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가 곧 그에게 진리라고 하였고, 윤리란 사람들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알기] ① 지식 습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편적 진리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다. ②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해당하며, 프로타고라스는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③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윤리적 보편주의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02 프로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사상 비교

같은 프로타고라스, 음은 플라톤이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은 진리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고,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철학자가 통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진리의 기준으로 보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므로,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ㄴ.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는 기개가 이성의 지배에 따를 때 나타나는 덕이다.

03 에피쿠로스가 구분한 욕구의 종류

자료 분석

생존과 관련된 식욕, 수면욕 등이 이에 해당해. 에피쿠로스는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이다. 둘째,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셋째,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이다. 명예욕이나 권력욕 등이 이에 해당해. 성욕과 같은 욕구가 이에 해당해.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이성과 지혜로 불필요한 욕망을 구별하여 버리고,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줄이는 절제와 감소함을 통해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④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는 충족되지 않아도 본성적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04 소크라테스와 스토아학파의 사상 비교

같은 소크라테스, 음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 에픽테토스이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영혼을 돌보고 성찰을 통해 참된 삶에 이르는 삶이 올바른 삶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라고 보았다.

05 감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의 입장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이 아우렐리우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덕에 따른 활동이라고 보았으며 감정의 적절한 조절, 즉 중용을 강조하였다. 스토아학파에서는 행복이 전적으로 내면의 부동심에 달려 있으며, 정념이나 감정은 극복 또는 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악행의 원인을 무지뿐만 아니라 습관, 의지, 성향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 세계(이데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 세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본성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로 보았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순한 내면의 평온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덕의 실천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06 신의 은총에 대한 아퀴나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관점 비교

자료 분석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존재의 질서에 관한 법을 영원법이라고 하였고,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갑: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지니는 것은 자연법에 근거한다. 이 가운데 인간이 이성애에 따라 행위하려는 것은 옳바르며, 선은 행하고 증진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 이는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로서 자연법의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을: 의지는 중간선으로서 불변하는 선에 결속될 때 참된 선을 획득한다. 그러나 의지가 그 선에서 돌아서 외적이거나 열등한 선을 따를 때 악이 발생하며, 이러한 선택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의 불행 또한 정당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이 만든 것도 아니며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일 뿐이며 신이 아닌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과 자연법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은총에 의존해야만 선에 이를 수 있으며, 악은 선의 결핍이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⑤ 갑과 을이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07 신앙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사상 비교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루터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고 인간이 자유 의지를 바로 세우고 신의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점에서 성서를 근거로 한 개인의 믿음과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③, ④ 루터에 비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 입장이다. ② 루터와 아우구스티누스 모두가 인정하는 입장이다.

08 칸트의 의무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의 형식을 지니며, 보편화 가능한 준칙과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원리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칸트가 인간도 이성애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오직 신에게만 한정하는 내용은 칸트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09 쾌락에 대한 벤담과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

자료 분석

벤담은 이러한 기준으로 쾌락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더 많은 양의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았다.

갑: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이며, 이는 모든 행위를 지배한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에 따라 평가된다.

을: 우리는 쾌락을 본성에 부여된 선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쾌락이란 신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유일한 선의 기준이라고 보았으나,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갑은 벤담,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그 강도와 지속성 등 여러 요소를 계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로 보고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두 사상이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ㄴ. 에피쿠로스는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밀의 질적 공리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에 따르면 쾌락은 양뿐 아니라 질적 차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밀은 고급 쾌락을 중시하였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11 키르케고르와 제임스의 사상

자료 분석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실존주의의 특징이며, 동시에 신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사상은 키르케고르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갑: 인간은 주체적 선택을 하는 존재이며, 그 과정에서 불안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종교적 결단을 통해 극복된다.

을: 아무리 정교해 보이는 지식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진정한 지식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현금 가치를 지닌다.

제임스가 주장한 '현금 가치'라는 개념이란 생각이나 지식이 마치 현금처럼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를 따지는 기준을 의미해.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제임스이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를 강조하며 인간이 주체적 결단을 통해 신 앞에서 참된 자아에 이한다고 보았다.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체계화하며 문학이나 신앙도 인간의 삶에 의미와 위안을 주고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자로서, 인간의 본질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③ 제임스는 문학이나 신앙이 현실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금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④ 실용주의에 따르면 고정된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 지식이 참된 가치를 가진다. ⑤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다.

12 요나스의 책임 윤리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현대 기술의 영향으로 인간 행위의 범위가 전 지구적·미래 지향적으로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며,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책임 윤리를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요나스는 인간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경제적 효율보다 행위의 장기적 위험과 책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요나스는 기술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④ 요나스는 미래 세대나 자연 등에 끼칠 장기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사르트르와 듀이의 인간과 도덕에 대한 입장

자료 분석

사르트르는 키르케고르가 신과 종교에 의한 실존의 회복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였고, 어떠한 목적이나 본질을 지니지 않은 채 자신의 선택으로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어.

갑: 인간 본성을 규정하는 신은 없으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세상에 던져진 이상 자신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을: 성장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며,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듀이는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이며 환경과 계속해서 상호 작용하는 존재라고 보았어.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반성의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해.

갑은 사르트르, 을은 듀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선택과 책임 속에서 불안을 통해 참된 실존에 이르는 존재로 보았다.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목적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목적이나 본질이 없다고 보았다. ③ 듀이는 도덕을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④ 듀이는 인간은 경험과 탐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보며, 절대적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고, 듀이도 인간의 도덕과 지식, 진리 등의 고정된 본질을 인정하지 않았다.

14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대한 태도

(가)의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관계 속에서의 배려를 중심으로 도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③ 정의 중심의 남성적 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관계 속에서의 배려를 중시하는 나딩스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15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이란 감정과 행위를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품성적 덕이다.

16 로스의 조건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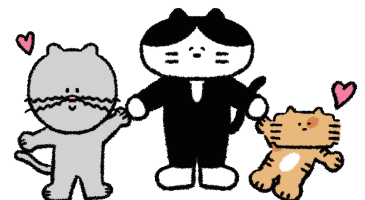
로스는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며 여러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의무를 직관으로 판단하여 실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로스는 이러한 조건부 의무로 기존 칸트 윤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주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1) **답** 사르트르

(2) **예시 답안** 사르트르는 인간이 먼저 존재한 뒤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해 나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현상에 드러난 청년들의 태도는 자신의 본질을 미리 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존재라는 점을 바탕으로 (나)의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고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인간의 자유나 선택을 언급하였으나, 인간이 본질을 형성하는 존재임을 불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사회사상

01 / 국가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40쪽

01 대동 사회 02 (1) 왕도 (2) 소국과민 03 무위지치 04 (1) ○
(2) × (3) × 05 아리스토텔레스 06 ① 07 ③ 08 ⑤ 09 ③

04 동양 사상가들의 국가관

(2) 묵가는 유교의 차별적 사랑을 비판하며, 모든 백성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 작은 나라에서 적은 수의 백성들이 소박하게 사는 소국과민 사회를 추구하였다.

06 공화주의의 국가관

공화주의에 따르면 국가란 시민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과 공동선을 기반으로 형성한 정치 공동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화주의는 국가를 특정 통치자나 권력층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의 것으로 본다.

[바로 알기] ② 사회 계약론자들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재산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계약의 산물이다. ③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④ 맹자에 따르면 국가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란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07 자연 상태에 관한 홉스의 관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전쟁) 상태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홉스는 자연 상태에선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 계약 이전까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④, 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로 보았지만, 사유 재산이 생겨나면서 불평등과 예측이 생겼다고 보았다.

08 로크의 국가관

로크는 절대 군주를 비판하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공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③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시민은 이 정부에 저항할 수 있고, 정부에게 위임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로크에게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09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근거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관련한 이론은 대표적으로 동의론, 본성론, 천명론, 혜택론이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41~143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④ 05 ③ 06 ② 07 ⑤
08 ⑤ 09 ① 10 ④ 11 ⑤ 12 ③

01 대동 사회의 특징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자이다. 유교에서는 국가를 가족 윤리가 확대되어 인륜을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자는 인(仁)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ㄴ. 묵가에서는 유교의 인(仁)을 차별적 사랑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백성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애(兼愛)를 강조하였다. ㄹ. 노자는 작은 나라, 적은 백성으로 소박하게 사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강조하고 통치자의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중시하였다.

02 노자의 소국과민

제시된 글은 노자가 주장한 소국과민을 설명하고 있다. 노자는 백성들이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소국과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03 공화주의의 국가관

공화주의자인 키케로는 국가를 인민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인민은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았다.

04 자연 발생설과 사회 계약설 비교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읍은 로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로크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으로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 이견 꼭 알기! 자연 발생설과 사회 계약론

-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 + 인간의 본성으로 국가가 자연스럽게 발생함 → 자연 발생설(아리스토텔레스)
- 개인의 사회 계약으로 국가가 형성됨 + 국가는 인위적 산물임 → 사회 계약론(홉스, 로크, 루소)

05 맹자와 노자의 국가관 비교

같은 맹자, 읍은 노자이다. 맹자는 민본에 따른 왕도 정치와 역성혁명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소국과민에서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을 거부하고, 백성을 무위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국가를 자연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다. ㄴ.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백성들을 무지·무욕하게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06 키케로의 국가관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화주의자 키케로이다. 키케로에 따르면 국가는 법과 공동선에 기반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치로써 소수의 독재를 방지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법치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유교에 따르면 국가는 가족 윤리가 확대된 공동체이다. ③ 마르크스는 국가를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국가는 행복의 최고선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며, 인간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⑤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다.

07 홉스의 사회 계약설

그림의 사상가는 홉스이다.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 보존을 우선시하는 본성을 가졌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 계약 이후에 형성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시민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시민은 국가 형성 이후에 정치적 저항권을 가질 수 없다.

바로 알기 ㄷ. 홉스는 로크와 달리 시민이 정부에 대해 정치적 저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홉스에 따르면 시민은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려면 통치자의 명령이 국가를 설립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08 루소의 사회 계약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개인이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개인과 정부 모두 일반 의지에 종속된다고 주장하였다.

09 로크의 사회 계약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으로 형성된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에 반하는 힘을 행사한다면 그 정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강조하였고,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이다. ③, ④ 홉스에 따르면 사회 계약을 통해 주권을 가지게 된 주권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며, 시민은 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 자유권 등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미전 꼭 알기!** 국가 주권에 대한 사회 계약론자들의 입장

- 사회 계약을 통해 개인은 절대 군주에게 주권을 양도함 → **홉스**
- 주권은 그 사회를 구성한 국민에게 있음 → **로크**
- 통치자도 일반 의지를 따라야 함 + 주권은 절대 분리, 양도될 수 없음 → **루소**

10 맹자의 향산과 향심

제시된 가상 대화 속 스승은 맹자이다. 맹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두는 민본 정치를 강조하며, 국가는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로크 입장에서 루소의 사회 계약론 비판

갑은 루소, 을은 로크이다. 로크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부터 이미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루소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모두 양도하여 사회 계약을 맺어야 그 권리를 보호받으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는 루소에게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 계약 이전에 형성됨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12 로크의 동의론

제시된 칼럼은 로크의 동의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의론에서는 국민 스스로 국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 권위가 정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 **미전 꼭 알기!**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

- 국가는 민본주의에 기초한 천명(天命)을 통해 정당화됨 → **천명론**
-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형성되었으므로 국가의 뜻에 따르는 것도 본성에 부합하는 일임 → **본성론**
- 개개인이 국가를 만들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발생함 → **동의론**
- 평화, 치안 등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성이 확보됨 → **혜택론**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44쪽

01 주제: 공자의 대동 사회

예시 답안 공자는 이상 사회로 ‘대동 사회’를 제시하였다. 대동 사회에서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공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이름과 특징을 모두 서술한 경우
하	공자가 제시한 이상 사회의 이름과 그 사회의 특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화주의 관점

예시 답안 공화주의에서는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시민의 자유 보장, 공동선 실현 등 공화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시민의 자유 보장, 공동선 실현 등 공화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03 주제: 노자의 소국과민

(1) **답** 노자, 소국과민

(2) **예시 답안** 노자는 작은 나라에서 적은 백성으로 소박하게 사는 사회인 소국과민을 강조하였다. 소국과민에서는 통치자의 위적인 다스림과 분별이 없는 무위지치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한 삶을 산다.

채점 기준	
상	소국과민의 특징을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중	소국과민의 특징을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소국과민의 특징을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국가 발생 관점 비교

(1) **답** 갑: 아리스토텔레스, 을: 루소

(2)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따라 국가는 자연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사회 계약론자인 루소는 국가가 개인들의 동의와 계약에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가 주장한 국가 발생 과정을 각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하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 중 한 사상가가 주장한 국가 발생 과정만을 서술한 경우

05 주제: 로크의 사회 계약론

(1) **답** 자연권

(2) **예시 답안** 로크는 국가 설립 이전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계약으로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로크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 설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로크의 관점에서 사회 계약을 통한 국가 설립의 목적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45쪽

01 ③ 02 ③

01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갑은 공자,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공자는 통치자의 덕치를 강조하였고, 인(仁)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행복과 좋은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며, 인간 본성에서 우리나라 자연적인 산물로 정의하였다. 국가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근대 사회 계약론의 입장이다.

바로 알기 ① 공자는 군주가 인의에 따른 덕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② 유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질서를 실현하며 인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공동체로 보았다. ④,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반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공자	• 국가는 인륜을 실현하는 공동체 • 인(仁)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대동 사회 제시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 • 국가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실현하는 공동체 • 개인의 행복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에서 실현 가능

02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비교

자료 분석

홉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사회 계약을 통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갑: 인간은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경쟁 때문에 약탈자가 되고, 허영심 때문에 공격자가 되기 때문에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여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한다.**

을: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계약을 하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일반 의지에 의해 보호받는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루소는 국가가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갑은 홉스, 을은 루소이다. 두 사상가 모두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 홉스는 국가 성립 이전인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하였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홉스에 의하면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합리적인 행위가 가능하다. 루소 역시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ㄷ. 홉스는 사회 계약으로 주권을 통치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홉스와 루소의 사회 계약론 비교

홉스	•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국가 형성의 목적: 개인의 생명 보존, 평화 실현
루소	•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 국가 형성의 목적: 사유 재산 이 생겨나면서 발생한 불평등 을 해결하기 위함

02 / 시민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48쪽

01 자연권 02 (1) ○ (2) × (3) ○ 03 (1) ~로부터의 자유
(2) 비지배로서의 04 벌린 05 ④ 06 ⑤ 07 ① 08 ①

0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진정한 자유

(2)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에 있다.

05 벌린의 소극적 자유

벌린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의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④ 벌린에게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이다. 벌린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할 자유', '~을 향한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06 페팅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

페팅에게 진정한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이다. 페팅에 따르면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시민의 참여로써 제정된 법에 복종할 때 실현될 수 있다.

07 자유주의의 공동선

자유주의에서 공동선은 개인선의 총합이며, 시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정치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08 자유주의의 관용

제시된 글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관용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관용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49~151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⑤ 05 ① 06 ④ 07 ⑤
08 ③ 09 ① 10 ③ 11 ⑤ 12 ⑤

01 자유주의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

자유주의에서 법치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02 자유주의의 사상적 관점

제시된 글은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은 스스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도 개인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기며 공동체와의 조화와 공동선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공화주의의 관점이다.

◆ **미션 꼭 읽기!** 공동선과 시민적 덕성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

- 공동선은 개인선의 총합 + 관용의 역설 경계 → **자유주의**
- 공동선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 + 관용의 덕 필요 → **공화주의**

03 공화주의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에 들어갈 사회사상은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알기] 나. 공화주의 사상가인 페팅은 진정한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 공화주의에서 공동선은 개인선의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공동선의 추구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04 벌린의 진정한 자유

제시된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벌린이다. 벌린에게 진정한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는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되면 자유의 영역도 커진다고 보았고, 선한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벌린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이다. ② 벌린은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자유의 영역도 커진다고 보았다. ③ 벌린은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자유주의에서 법치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05 벌린의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제시된 글은 벌린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극적 자유는 '~할 자유'나 '~을 향한 자유'로, 소극적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미션 꼭 읽기!** 벌린의 두 가지 자유

-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 '~할 자유', '~을 향한 자유' → **적극적 자유**
-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의 자유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 → **소극적 자유**

06 밀의 자유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07 페트의 진정한 자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페트이다. 페트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유를 실현하는 데 법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페트에 따르면 법의 형태는 간섭으로 나타날지라도 이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페트에 따르면 자의적 지배 상태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08 벌린과 페트의 진정한 자유 비교

갑은 페트, 을은 벌린이다. 페트에게 진정한 자유란 지배의 부재에 있고, 그는 체계적인 법은 지배하지 않는 간섭으로 보았다. 따라서 법에 복종해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벌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리적인 제도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법의 간섭이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② 페트에게 법은 합리적이고 지배하지 않는 간섭이다. 따라서 이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지만 타인에 의해 자의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④ 벌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간섭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벌린은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려면 법의 간섭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09 벌린과 롤스의 자유 비교

갑은 벌린, 을은 롤스이다. 벌린은 재분배 정책처럼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를 우려하였다. 반면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돕기 위한 재분배는 자유와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벌린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따라서 벌린의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롤스는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끔 돕는 재분배 정책 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벌린에 따르면 간섭받지 않는 영역이 커지면 자유의 영역도 커진다. ⑤ 벌린은 자의적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소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미전 꼭 읽기!** 롤스의 두 가지 정의의 원칙

- 각 개인은 기본적인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함(차등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함 → **제2원칙(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10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화주의이다. 공화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법의 지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선을 개인선의 합으로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②, ⑤ 자유주의에서도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공공의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1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용과 애국심

자유주의에서 보는 애국심의 대상은 헌법의 이념이다. 공화주의에서는 애국심을 자유와 정의가 확립된 조국을 대하는 인위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 **미전 꼭 읽기!**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애국심

- 애국심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존중하는 마음임 → **자유주의 관점**
- 애국심은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동료 시민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임 → **공화주의 관점**

12 토크빌의 애국심

그림의 사상가는 토크빌이다. 토크빌은 사람들이 개인의 복리가 국가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는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치 활동에 참여할 때 애국심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52쪽

01 주제: 자연권 사상과 자유주의의 관계

예시 답안 자유주의는 자연권 사상을 기반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하며 발전하였다.

채점 기준	
상	자유주의가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자유주의와 자연권 사상이 연관이 있음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02 주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관용의 역설

예시 답안 (가)에 들어갈 용어는 관용의 역설이다. 관용의 역설이란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다.

채점 기준	
상	(가)에 들어갈 용어가 관용의 역설임을 알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가)에 들어갈 용어가 관용의 역설임을 작성했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가)에 들어갈 용어와 그 의미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3 주제: 페ť의 자유의 핵심

(1) **답** 페ť, 공화주의

(2) **예시 답안** 페ť에게 자유의 핵심은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에 있다. 그는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진정한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임을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페ť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를 핵심어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페ť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를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페ť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를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벌린의 진정한 자유

(1) **답** 벌린

(2) **예시 답안** 벌린은 소극적 자유(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벌린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벌린이 그렇게 주장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벌린이 주장한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서술하였으나 벌린이 그렇게 주장한 까닭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05 주제: 비롤리의 애국심

예시 답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비롤리이다. 비롤리는 애국심이 자유를 수호해 온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주장한 애국심은 국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에 공유된 역사에 기초한 것이다.

채점 기준	
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와 그가 주장하는 애국심에 대해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지는 작성하였으나 그가 주장하는 애국심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이지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53쪽

01 ② 02 ①

01 벌린과 비롤리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 비교

갑은 벌린, 을은 비롤리이다. 벌린은 정의로운 제도나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간섭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롤리는 간섭 없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며, 자의적 지배를 막으려면 사적 지배를 통제하는 법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벌린은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자유의 영역도 확대된다고 보았다. ③ 공화주의에 따르면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 권력의 지배하에 있다면 그것이 예측 상태인 것이다. ④ 벌린에게 '~을 향한 자유'는 적극적 자유, '~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비롤리에 따르면 예측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화주의 관점에서 정당한 법적 제약은 예측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본 시민적 자유와 권리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중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함 • 법의 간섭 최소화: 다른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외에 공권력 혹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됨
공화주의	• 개인의 정치 참여 강조: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의 법과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로 실현할 수 있음 • 법에 대한 복종: 법치는 자의적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함

02 페ť과 벌린의 진정한 자유

갑은 페ť, 을은 벌린이다. 따라서 페ť 입장에 비해 벌린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비지배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라고 보는 정도(Y)'와 '불간섭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이 비례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바로 알기 X: 페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도는 벌린이 페ť보다 낮다. Y: 벌린에게 진정한 자유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는 정도는 벌린이 페ť보다 높다. Z: 벌린은 불간섭의 영역이 커질수록 자유의 영역도 커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영역이 비례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벌린이 페ť보다 높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페ť과 벌린의 진정한 자유

페ť	• 자유의 핵심은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 •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가 필요함
벌린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 • 적극적 자유는 실현 과정에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03 /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56쪽

- 01 국민 02 (1) ○ (2) ○ (3) × 03 (1) ㉠ (2) ㉡ (3) ㉢
04 엘리트 민주주의 05 (1) 사익 (2) 심의 06 ④ 07 ⑤
08 ③ 09 ⑤

02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

(3)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정치 참여 기회와 권한을 가진다.

06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의사 결정과 집행의 최종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바로 알기] 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② 민주주의 체제의 통치 주체는 국민이다. ③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며, 지도자를 감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민주주의에서는 시민 통제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감시할 수 있다.

◆ **미션 꼭 알기!**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

- 국민 주권의 원리 → **민주주의의 원리**
- 시민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의 원칙 + 시민 통제의 원칙 → **민주주의의 원칙**

07 심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근대 이후 기본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하였다.

08 민주주의의 이상 구현 방법

주민 자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은 지도자 선출하는 것을 넘어 이를 감시하고, 지도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민주주의에서는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④ 국가의 규모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⑤ 시민 불복종은 다른 합법적 수단을 먼저 진행하고, 변화가 없을 시에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해야 한다.

09 롤스의 시민 불복종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공동체의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는 합법적 절차를 먼저 시도한 뒤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바로 알기] ①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을 개인의 양심에 두었다. ②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민 불복종은 우선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시도해 본 뒤,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 싱어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할 이익과 손해, 법과 정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57~159쪽

- 01 ①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⑤
08 ③ 09 ① 10 ③ 11 ④ 12 ②

01 페리클레스의 민주주의

그림의 사상가는 페리클레스이다. 그는 특정 엘리트 계층이 아닌 전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시민에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② 솜페터의 입장이다. 그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엘리트 간의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였다. ③, ④ 과두정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⑤ 당시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여성, 노예, 외국인은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02 대의 민주주의의 특징

(가)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 전체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성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ㄷ.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ㄹ.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미션 꼭 알기!**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과 한계

-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 극복 + 효율적인 정치적 의사 결정 가능 →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
- 시민의 정치적 소외감 및 무관심 강화 + 대표성의 실패 현상 발생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03 솜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솜페터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시민은 그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그는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 선출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04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가)는 참여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공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하며 이루어진다.

05 참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장단점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정치 참여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알기] 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②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양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③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⑤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 **미션 꼭 알기!**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

- 각자의 여건에 따라 동등한 정치 참여가 어려움 + 정치 참여 목적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음 →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
-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움 + 시민 간 정보의 불균형이나 합리적 의사소통 부족으로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움 →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

06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

제시된 글은 심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직접 공적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소수의 대표자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트 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07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상대적 특징

(가)는 대의 민주주의, (나)는 참여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에 비해 참여 민주주의가 갖는 상대적 특징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X)'와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 정치를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대표자가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바로 알기] X: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는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높다. Y: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는 정도는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높다. Z: 대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가 정치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는 정도는 참여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낮다.

08 대의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특징

(가)는 대의 민주주의, (나)는 심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심의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알기] 나.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대표자가 정책을 집행하므로 시민은 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다. 대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09 민주주의의 이상 구현 방법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려면 개인의 정치 참여가 사익 추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

10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중 '공개성'이란, 행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11 싱어의 시민 불복종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싱어이다. 싱어는 법과 정책이 다수에 의해 결정되었어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 발생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하려면 공적인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③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싱어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12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에게 법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류의 소지가 있는 법과 정책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정되어야 하고, 시민 불복종이 그러한 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미션 꼭 알기!** 시민 불복종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 개인의 양심에 따름 + 정의에 대한 존경심 중시 → **소로**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 + 공적 정의관 호소 → **롤스**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 계산 +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 정도 고려 → **싱어**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에게 법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해서는 안 됨 + 시민 불복종은 법치 국가의 정당성을 수호하는 행동 → **하버마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60쪽

01 주제: 국민 주권의 원리의 의미

[예시 답안] 국민 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을 하는 최종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이다.

채점 기준	
상	국민 주권의 원리의 의미와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국민 주권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것만을 서술한 경우

02 주제: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예시 답안] 민주주의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이다. 이는 모든 구성원의 정치적 평등을 전제하며 공공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시민 통제의 원칙이다. 이는 시민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감시하며 지도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채점 기준	
상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은 작성하였으나 원칙의 의미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의 이름만 각각 서술한 경우

03 주제: 숨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1) **답** 숨페터

(2) **예시 답안** 숨페터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지니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그들이 비합리적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는 엘리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숨페터의 주장을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숨페터의 주장을 핵심 어구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숨페터의 주장을 핵심 어구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비교

(1) **답** (가): 참여 민주주의, (나): 심의 민주주의

(2) **예시 답안**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모두 모든 시민의 동등한 정치 참여나 심의 과정 참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채점 기준	
상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의 공통적인 한계로 모든 시민의 동등한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하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중 한 가지 형태의 한계만 서술한 경우

05 주제: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1) **답** 갑: 소로, 을: 롤스

(2) **예시 답안**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을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내세웠으나 롤스는 양심에 근거한 행위일지라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롤스는 개인의 신념을 넘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롤스와 소로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조건을 각각 작성하여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롤스와 소로 중 한 명의 사상가가 주장한 정당화 조건만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61쪽

01 ⑤ 02 ③

01 민주주의의 형태와 특징

갑은 페리클레스, 을은 숨페터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

이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숨페터는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지니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숨페터가 주장한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권력을 갖는다. ② 숨페터는 일반 시민은 정치적 문제를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숨페터는 일반 시민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감이 취약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페리클레스는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숨페터는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직접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비교

직접 민주주의	모든 시민은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엘리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 선출뿐임

02 민주주의의 형태에 따른 시민의 역할

자료 분석

공화주의에 따르면 국가란 법과 공동선을 기반으로 한 정치 공동체야.

갑: 국가란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체이다.

을: 국가에서 인민은 단지 정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엘리트들은 민주주의적 방법 안에서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한다.

↳ 숨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들이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어.

갑은 키케로, 을은 숨페터이다. 키케로에게 국가란 법에 의해 운영되는 인민의 결사체이다. 숨페터는 인민의 투표를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능력 있는 소수 엘리트들의 경쟁과 그들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ㄱ. 공화주의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하였다. 키케로에 따르면 인민의 정치 참여 목적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ㄴ. 숨페터는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민의 역할은 지도자 선출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키케로와 숨페터가 본 인민의 역할

키케로	•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함 •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법치를 따라야 함
숨페터	• 대표자를 선출하는 역할만 해야 함 • 대표자를 승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음

04 자본주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STEP 1 핵심 개념 확인하기

164쪽

- 01 (1) ○ (2) × (3) ○ 02 (1) ㉠ (2) ㉡ (3) ㉢ 03 (1) 시장
(2) 공기업의 민영화 04 수정 자본주의 05 ㉣ 06 ㉤
07 ㉥ 08 ㉦

01 자본주의의 원리

(2)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체제이다.

05 자본주의의 현실적 기여

자본주의는 사회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며 사회 구성원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했지만,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빈부 격차 문제를 심화시켰다.

06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는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오직 자유 경쟁 체제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과 계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였다. ④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정부가 복지 정책 감축, 노동 시장 유연화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07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사상적 대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한다는 연기의 관점에서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바로 알기] ① 룰스의 입장이다. ② 유교의 입장이다. ③ 묵가의 입장이다. ⑤ 도가의 입장이다.

08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소비를 지향해야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STEP 2 내신 만점 공략하기

165~167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01 자본주의의 의미와 원리

자본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거래, 계약과 같은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02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그림의 강연자는 스미스가 주장한 고전적 자본주의에 대하여 연설하고 있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 ②, ⑤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④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03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케인스이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하고,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 스미스의 입장이다. 그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이 보장되면,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았다. ㉤. 신자유주의 사상이 하이에크는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 시장의 자유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04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공산주의를 제시한 마르크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고전적 자본주의자 스미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④ 수정 자본주의자 케인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미션 꼭 알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자본주의 형태별 입장

- 국방 + 치안 등의 역할에 한정해야 함 → **고전적 자본주의(스미스)**
- 공공 투자 + 완전 고용 + 복지 정책 확대 → **수정 자본주의(케인스)**
- 공기업의 민영화 + 복지 제도 감축 + 노동 시장 유연화 → **신자유주의(하이에크)**

05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가)는 수정 자본주의, (나)는 신자유주의이다.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빈곤, 실업 등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 시장 경쟁을 지향하며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였다. ③ 공산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④ 고전적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⑤ 신자유주의에만 해당하는 입장이다.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대량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 고용을 주장하였다.

◆ **미전 꼭 읽기!**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 시장 실패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대량 실업 발생 → **수정 자본주의 등장**
- 정부 실패에 따른 정부의 거대화 + 정부 부패 → **신자유주의 등장**

06 자본주의의 유형과 입장

㉠은 고전적 자본주의, ㉡은 수정 자본주의, ㉢은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하이에크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 계획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자유 경쟁 체제에서만 개인의 경제 활동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07 고전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갑은 스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갑은 고전적 자본주의자인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정부의 개입은 치안 유지, 국방 등 최소한의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08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은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②, ⑤ 수정 자본주의에서 주장할 입장이다. ③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주장할 입장이다.

09 빈부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상의 대안

노자의 무위자연에 따르면 과도한 이윤 추구 활동보다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미전 꼭 읽기!** 빈부 격차 해결을 위한 사회사상적 측면의 윤리적 대안

- 권리사의(見利思義) + 윤리적 경제 행위 지향 → **유교**
- 연기(緣起) +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고 타인과의 공존 중시 → **불교**
- 무위자연(無爲自然) +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도가**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 계급과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제시 → **마르크스**
-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 완전 고용 → **민주 사회주의**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것을 강조함 → **롤스**

10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

가상 편지는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를 비판하며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민주 사회주의의 접근 방식은 현대 복지 국가가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바로 알기] ②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개입 영역을 치안, 국방 등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신자유주의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로 자유 시장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며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러야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1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롤스의 방안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은 롤스이다.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② 겸애를 주장한 묵자의 입장이다. ③ 수정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④ 무위자연을 강조한 노자의 입장이다.

12 자본주의의 윤리적 개선 방안

자본주의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제재해야 한다.

STEP 3 서술형 도전하기

168쪽

01 주제: 자본주의의 현실적 기어

[예시 답안] 자본주의가 도래함에 따라 사적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었다. 또한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채점 기준	
상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기여한 점을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기여한 점 중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02 주제: 정부 실패의 의미

[예시 답안] 정부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였으나 공정한 소득 분배와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상	정부 실패의 의미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정부 실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못하였으나 맥락상 알맞게 서술한 경우

03 주제: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1) **[답]** 스미스, 고전적 자본주의

(2) **[예시 답안]**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시장 실패로 이어졌고, 빈부 격차의 극대화, 대량 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채점 기준	
상	고전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핵심 어구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중	고전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핵심 어구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고전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핵심 어구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04 주제: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비교

- (1) **답** 갑: 하이에크, 을: 케인스
- (2) **예시 답안**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실업, 부의 불평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상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올바르게 비교한 경우
중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를 서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경우
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수정 자본주의 중 한 가지 체제의 입장만을 서술한 경우

05 주제: 민주 사회주의의 공정한 분배 방안

- (1) **답** 민주 사회주의
- (2) **예시 답안**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시장을 계획하고 통제하면서 민주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민주 사회주의의 접근 방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복지 국가가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민주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정한 경제적 분배 방안과 의의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맞추어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글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서술하였으나 조건에서 제시한 핵심어 중 일부만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글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서술하였으나 조건에서 제시한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고 서술한 경우

STEP 4 1등급 정복하기

169쪽

01 ⑤ 02 ③

01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하이에크는 정부의 기능 축소를 강조하였다. 하이에크는 국가의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개인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오직 자유 경쟁 체제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수정 자본주의에서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시장 실패)을 지적하였다. ④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은 정부의 의식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

수정 자본주의	• 시장 실패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 대량 실업 발생을 극복하고자 등장함 • 공공 투자, 완전 고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강조
신자유주의	• 정부 실패로 인한 정부의 거대화, 부패를 극복하고자 등장함 •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 정책의 감축, 노동 시장의 유연화 강조

02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의 차이점

자료 분석

갑: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가 폐지된다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들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뿐만 아니라 계급의 철폐도 강조하였다.

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형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해 버렸다. 자유 없는 사회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의 결합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갑은 마르크스, 을은 민주 사회주의자의 입장이다. 마르크스와는 달리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의회 정치나 공공 정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화는 노동자를 소외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이를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드.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를 일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계급이 철폐된 공산주의 사회를 강조하였다.

판서로 보는 고난도 개념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의 특징

마르크스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함 • 계급과 국가는 소멸되어야 함
민주 사회주의	• 인정할 수 있는 사적 소유가 있음 • 의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함 • 빈부 격차 극복을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완전 고용을 보장해야 함

- 01 ④ 02 ②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③ 14 ④
 15 (1) 일반 의지 (2) 해설 참조 16 자의적 지배
 17 해설 참조

01 노자와 공자의 국가관

잡은 노자, 읍은 공자이다. 노자는 소국과민에서 통치자의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지치를 주장하였다. 공자는 국가를 인륜을 실현하며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로 보았고, 성인이 다스리는 대동 사회를 제시하였다.

[바로 알기] ①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며, 백성들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무위로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②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지닌 철인이 통치하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③ 묵가에서는 유교의 차별적인 사랑을 비판하며 모든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겸애를 강조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생겨난 자연적 산물이다.

02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그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보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오직 국가 안에서만 자신의 완전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마르크스의 입장이다. 그는 국가를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최고선을 실현하는 데 있다. ⑤ 공화주의의 국가관이다. 공화주의에서는 국가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공동선을 기반으로 만든 공동체로 보았다.

03 로크의 사회 계약론

자료 분석

사람들이 그들 간의 분쟁을 재판할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가지지 못한 채 이성애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자연 상태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힘을 사용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전쟁 상태이다. 이러한 전쟁 상태를 피하려는 것이 사람들이 사회를 결성하고 자연 상태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이다. **↳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설립했다고 보.**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로크이다. 로크는 국가 권력이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힘을 행사한다면, 그 정부는 정당성이 상실되고 시민은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③, ④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다. 그는 국가 형성 이후 주권은 절대 군주에게 귀속되며, 시민들은 절대 군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루소는 사유 재산 때문에 발생한 불평등과 예속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04 루소의 사회 계약론

자료 분석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있는 공동의 것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로서의 우리는 각 구성원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다. **↳ 루소는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한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였으나 사유 재산이 생겨남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루소는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05 벌린의 진정한 자유

그림의 사상가는 벌린이다.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며,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06 공화주의(페티)의 시민적 자유

페티는 실질적인 간섭 없이 자의적 지배를 받는 상황만으로도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페티에게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닌 지배의 부재이다.

07 공화주의(비롤리)의 애국심

제시된 칼럼을 주장한 사상가는 비롤리이다. 그는 애국심을 시민의 자유를 지켜 준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에서 생겨나는 인위적인 감정으로 보았다.

08 쉘페터의 민주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쉘페터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권 획득을 위한 제도로 이해하였으며, 그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수의 엘리트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지도자 선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 쉘페터는 정책 결정을 위한 엘리트들의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은 그들을 부인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투표자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09 심의 민주주의의 한계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시민 간 정보 불균형 등의 이유로 모든 시민이 동등한 심의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알기] ①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증가도 지향한다. ② 국민 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가 따르는 기본 원리이다. ③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위주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④ 참여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 참여 목적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0 롤스의 시민 불복종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미전 꼭 알기!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 불복종의 정당성 +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공개성**
- 사회 정의 실현 +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진행해야 함 → **공동선 추구**
-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 **비폭력적 방법 사용**
-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 +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감수 → **처벌 감수**
- 합법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고려해야 함 → **최후의 수단**

1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신자유주의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자유 시장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주장하였다.

12 케인스와 스미스의 자본주의 비교

갑은 케인스, 을은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의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케인스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①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공산주의자인 마르크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케인스는 긍정, 스미스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스미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3 케인스의 마르크스 비판

자료 분석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가 자본에 착취당한다고 보았어.

갑: 공장식 대량 생산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 능력을 억압한다. 처음에는 상품 생산을 위한 수단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했다면, 이제는 개인의 노동력을 자본에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진다.

을: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결함은 완전 고용을 성취하지 못하고, 부와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의 파탄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케인스는 이처럼 정부의 기능이 축소되어 완전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어.

갑은 마르크스, 을은 케인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노동자 소외 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케인스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수정 자본주의 입장에 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④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핵심 주장이므로, 마르크스에게 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것은 고전적 자본주의자인 스미스이다.

14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

소셜 줄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난장이 가족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와 인간 소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미전 꼭 알기! 자본주의의 한계

- 인간 존엄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가 수단으로 전락함 → **물질만능주의 팽배**
- 사회의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함 → **경제적 불평등 심화**
- 인간이 만든 생산물에 인간이 지배당함 → **인간 소외 현상 심화**

15 루소의 일반 의지

(1) **답** 일반 의지

(2) **예시 답안** 윗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루소이다. 사회 계약론자들은 개개인이 국가를 만들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루소임을 쓰고, 사회 계약론자들이 동의론에 근거하여 국가 권위를 정당화했음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중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인지는 쓰지 못했으나 사회 계약론자들이 동의론에 근거하여 국가 권위를 정당화했음을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가 루소인 것만을 서술한 경우

16 페팅의 진정한 자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화주의자 페팅이다. 페팅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비지배로서의 자유)이다.

17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목자의 조언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목자이다. 그는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기보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검약을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목자임을 쓰고, 목자의 경제교리에 따른 자본주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목자임을 쓰고, 목자의 경제교리에 따른 자본주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하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목자인 것만 서술한 경우

완자 중간·기말고사 풀이

완자 중간고사

02-07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①
08 ⑤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⑤	14 ③
15 ②	16 ③	17 ①	18 ⑤	19 ④	20 ②	
21 공자	22 왕도 정치	23 연기법(연기설)				
24 ㄱ	25 이통기국	26 기호	27 해설 참조			
28 해설 참조						

01 순자의 천인지분(天人之分)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구분된다는 천인지분(天人之分)을 주장하며, 하늘을 도덕의 근원이 아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도덕과 사회 질서는 인간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④ 사단을 확충하면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맹자이다. 그는 사단을 확충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였다.

02 고자와 맹자의 인성론

갑은 고자, 을은 맹자이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악의 구분이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며 성무선악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타고났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고자는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 중립적인 것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03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와 순자 모두 이상적 인격을 완성하고 인의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맹자는 욕망을 줄이고 놓아 버린 본심을 찾는 것을, 순자는 예를 배우고 익힐 것을 강조하였다.

04 왕수인의 양명학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그는 양지를 도덕적 인식으로 보았으며, 도덕적 실천과 지식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ㄱ. 왕수인은 도덕적 실천과 지식이 본래 하나라고 보았다. 따라서 왕수인이 도덕적 실천과 지식의 선후 관계를 구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ㄴ.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직관적 도덕 인식이지, 분석이나 추론의 결과가 아니다.

05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제시된 가상 대화 속 스승은 노자이다. 노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통해 인위적인 욕심과 지식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06 장자의 제물(齊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편견을 버리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을 강조하였다.

07 공자와 노자의 사상

갑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힘이나 형벌이 아닌, 통치자의 도덕적 감화와 예(禮)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방식인 덕치를 강조하였다. 반면 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덕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ㄷ. 노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하였다. ㄹ. 공자는 인을 실현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고, 노자는 백성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하는 정치를 강조하였다.

08 석가모니의 연기(緣起)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연기(緣起)에 따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성립하며, 독립적이고 영원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행의 목적은 자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데 있다.

09 불교의 사성제

불교의 사성제 중 도성제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라는 여덟 가지 수행법과 계율, 선정, 지혜의 공부를 뜻하는 삼학(三學)의 수행법이 있다.

[바로 알기] 삼법인은 불교의 세 가지 진리로,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이 있다. 삼법인에 '일체개고(一切皆苦: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다.)'를 더하면 '사법인(四法印)'이 된다.

10 원효의 화쟁 사상에 따른 조연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화쟁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조화롭게 통합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A에게 상호 이해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11 원효의 화쟁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서로 대립하는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의미의 화쟁 사상을 통해 각 종파의 이론을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서 융합할 것을 강조하였다.

12 지눌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의 쟁론은 무의미하며, 서로 추구하는 궁극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13 의천과 지눌의 수행 방법

지눌은 정혜쌍수를 통해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 사물의 참모습을 통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14 이황의 사단 칠정론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황이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본연지성에서, 칠정은 기질지성에서 발하였다. 또한 이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 감정과 조작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ㄱ.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에 대한 설명이다. ㄴ. 칠정이 악으로 흐르게 되는 것은 말[氣]이 사람[理]을 태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

15 이이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다. 그는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설명하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며 칠정 중 선한 감정이 사단이라고 보았다.

16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비교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름을 강조하며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고, 칠정을 가선가악한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기에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조식의 경의(敬義)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조식이다. 조식은 경으로 마음을 밝히고 의로 일을 처리하라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② 돈오점수를 강조한 것은 지눌이다. ③ 경은 결과가 아니라 수양의 출발점이자 방법이다. ④ 인위를 버리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한 것은 노자와 장자이다. ⑤ 기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은 이이(율곡)이다.

18 조식과 정제두의 수양법

갑은 조식, 을은 정제두이다. 양지·양심 중심의 수양을 강조한 것은 양명학과 정제두이고, 조식은 경의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19 정약용의 자주지권(自主之權)

그림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이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실천을 통해 사덕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 맹자와 정약용의 사상

갑은 맹자, 을은 정약용이다. 맹자와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사덕의 실마리인 사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사덕을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맹자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ㄴ. 맹자와 정약용 모두 도덕적 실천과 의지를 중시하였기에 선악이 단순히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ㄷ. 정약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C에 적합하다.

27 장자의 사상

- (1) **[답]** 사상가: 장자, 수양법: 좌망, 심재
(2) **[예시 답안]** 장자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의 관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나)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장자가 '제물'을 중시했음을 쓰고, 제물의 관점을 담아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한 경우
하	장자가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의 관점을 중시한 것만 서술한 경우

28 의천과 지눌이 본 고려 불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1) **[예시 답안]**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과 지눌은 공통적으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천은 내외검전과 교관검수를, 지눌은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채점 기준	
상	의천과 지눌이 바라본 고려 불교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각각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중	의천과 지눌이 바라본 고려 불교의 문제점을 작성하였으나 의천과 지눌 중 한 사상가가 제시한 해결 방안만 서술한 경우
하	의천과 지눌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고려 불교의 문제점만 서술한 경우

- (2) **[예시 답안]** 부처의 성품을 깨달았더라도 과거부터 쌓여 온 잘못된 습관이나 번뇌인 습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남아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번뇌인 습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 01 ② 02 ①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⑤ 09 ②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③
15 ⑤ 16 ② 17 ① 18 ⑤ 19 ③ 20 ②
21 인간 척도론 22 평정심(아타락시아) 23 조건부 의무
24 무위지치 25 벌린 26 신자유주의 27 해설 참조
28 해설 참조

01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소피스트로, 각각의 개인이 윤리적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비판하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나.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며, 사람들은 무지를 인정하고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성찰해야 한다. 르.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원인을 참된 앞의 부재라고 보았다.

02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행복

그림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으로 보았으며, 행복은 현실에 있기에 그것의 실현도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탁월성으로서의 덕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③ 플라톤의 주장이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악한 감정이나 행위에는 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중용의 기준을 지성적 덕으로 파악할 수 있듯, 품성적 덕과 지성적 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03 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입장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은 각자에 일에 집중할 뿐, 서로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① 플라톤의 주장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의 습관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④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의 덕뿐만 아니라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더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면 덕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04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관점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겪을 수 없고, 죽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바로 알기]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은 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의 입장이다. ⑤ 동양의 유교적 사상이다.

05 외부 사건에 대한 스토아학파의 입장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토스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개인의 지위나 외부 상황 등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06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

그림의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자유 의지를 올바르게 발휘하기 어렵다.

[바로 알기] ①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라본 신은 인격신에 해당한다. ②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최고의 종교적 덕은 사랑이다. ④, 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으려면 신의 은총이 필수적이다.

07 아퀴나스의 사상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인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가. 아퀴나스는 실정법이 자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르. 아퀴나스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로 완성될 수 있다.

08 칸트가 강조한 보편화 가능한 준칙

제시된 칼럼의 주장은 칸트의 관점과 관련이 깊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도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09 밀의 질적 공리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였다. 밀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고상한 쾌락과 타인의 행복이 실현되었을 때 느끼는 이타심을 중요한 쾌락으로 보았다.

10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입장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벤담은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낳는 행위를 옳다고 보았다.

[바로 알기] 가. 벤담이 긍정, 칸트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A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다. 나. 칸트와 벤담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11 하이데거의 현존재

(가)는 하이데거가 주장한 현존재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은 비록 죽음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물으며 죽음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12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입장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종교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로 규정하였다.

바로 알기 ㄱ. 키르케고르만의 입장이 아닌 실존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
이므로 B에 해당하는 진술이다. ㄴ.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긍정하며, 이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13 듀이와 제임스의 실용주의

갑은 듀이, 을은 제임스이다. 듀이에 따르면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이나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형성되고 발전된다.

바로 알기 ① 듀이에 따르면 인간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다. ③, ④ 제임스는 학문, 문학, 신념은 실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때 가치를 지닌다. ⑤ 실용주의에 따르면 참된 지식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요나스의 책임 윤리

요나스는 현세대의 인간이 미래 세대의 삶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갑. 요나스는 현세대의 삶과 미래 세대의 삶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였다.

15 사회 계약론자들의 다양한 관점

갑은 루소, 을은 로크, 병은 흄스이다.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흄스는 사회 계약을 통해 시민이 절대 군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전면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6 페티트의 공화주의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페티트이다. 진정한 자유를 지배의 부재로 규정한 페티트에 따르면 자의적 지배 상태에 놓여 있어도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법의 지배가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바로 알기 ㄴ. 페티트에 따르면 자의적 지배 상태는 그 자체로 이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ㄹ. 페티트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17 대의 민주주의의 특징

밑줄 친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다수결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엘리트 민주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대의 민주주의의 체제에서 시민은 선거 외에도 여론을 형성하거나 청원을 진행하거나 시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18 소로의 시민 불복종

제시된 글을 주장한 사상가는 소로이다. 그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보았다. (나)의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소로의 입장에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 없다.

19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로 인한 경제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개입은 정부의 거대화, 무능, 부패로 이어져 정부 실패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0 시장에 대한 스미스와 하이에크의 입장

갑은 스미스, 을은 하이에크이다. 스미스는 정부의 의도나 개입 없이 시장의 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자유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ㄴ. 하이에크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 경쟁과 시장의 자생적 조정 기능을 강조한다. ㄹ. 유효 수요 창출이나 투자의 사회화는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적 입장으로, 스미스나 하이에크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

27 주제: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1) **답** (가): 이성, (나): 기개, (다): 욕구

(2) **예시 답안**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상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하	이데아에 대한 설명 없이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만을 서술한 경우

28 주제: 플라톤의 정의

(1) **답** 갑: 의무론, 을: (양적) 공리주의

(2) **예시 답안**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도덕적 원칙과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착한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짓말이 더 큰 행복이나 이익을 가져온다면 ‘착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채점 기준	
상	의무론은 원칙과 의무에 따라 거짓말을 금지하고, 공리주의는 결과에 따라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하	두 이론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착한 거짓말에 대한 한쪽 입장만 서술한 경우

수행 평가 끝장 보기 풀이

활동형 문제 01 인간 본성론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 순자, 고자의 입장을 비교할 때에는 각 사상가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이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예시 답안

맹자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의 실마리인 사단을 지닌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다만 욕망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선한 본심을 잃으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사단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자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악을 좋아하고 욕망을 따르려는 본성을 지닌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다투고 혼란이 생기므로, 예와 교육을 통해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자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였다. 악한 행동은 본성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외부 영향과 후천적 선택에 따라 나타나므로, 바른 환경과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예시 답안

제목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가
중심 주장	나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맹자의 성선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의 실마리인 사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이 본래부터 완성된 도덕적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 지닌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확충함으로써 도덕적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거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타까워하거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이러한 마음은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놀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사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구호 물품을 나누는 사례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욕망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이러한 마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단을 보존하고 확충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한 마음을 꾸준히 기르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만점 공략! 원자쟁의 과세특 POINT ●

‘인간 본성론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활동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맹자, 순자, 고자의 입장을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로 구분하여 정확히 정리하였음. 특히 각 사상가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과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방법까지 연결하여 비교한 점이 돋보였음. 나아가 자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인간 본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활동형 문제 02 진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문 사설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신문 기사 자료를 통해 조사하고, 해당 문제를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신문 사설을 작성할 때는 문제 상황 제시, 동양 사상의 적용,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천 방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해야 한다.

1 예시 답안

희망 진로	의류학과, 의상 디자이너
관련된 사회 문제	패스트 패션의 환경 오염 문제
문제 사례를 담은 신문 기사 내용	〈일주일 입고 버려지는 옷 뒤에 숨은 환경 재앙〉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가나의 해안가에는 전 세계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진 옷이 대량으로 쌓여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수질 오염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신 유행을 빠르게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가 결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예시 답안

동양 사상	☐ 유교 ☒ 불교 ☐ 도가
선택한 이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자신과 세계 전체에까지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패스트 패션이 초래한 환경 오염 문제를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불교 사상을 선택하게 되었다.

3 예시 답안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자

오늘날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유행의 반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쉽게 버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과 수질 오염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연기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류 생산자, 소비자, 자연환경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의류 산업은 더 많은 옷을 더 빨리 생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소비자도 옷을 쉽게 사고 버리기보다, 자신의 소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며 신중하게 소비해야 한다. 의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나는 패션이 단순히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는 산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상 디자이너는 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섬유를 활용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설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샘의 과세특 POINT ●

‘진로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문 사설 작성하기’ 활동에서 의류 산업과 관련된 패스트 패션의 환경 오염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하였음. 불교의 연기 사상을 토대로 의류 생산자, 소비자, 자연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해결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논술형 문제 03 장자의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 문제 성찰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해지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 의식도 흐려질 수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나)는 장자의 기심(機心) 개념을 다루고 있다. 기계의 편리함에 사로잡힐 경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잃게 되므로, 기계에 의존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1 예시 답안

장자는 사람이 기계의 편리함에 지나치게 기대면 기계를 쓰려는 마음, 즉 기심이 생겨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잃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결과만을 얻으려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예시 답안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편리한 도구로 활용하되,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글쓰기나 정보 검색, 이미지 제작 등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지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향을 세운 뒤 보조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때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창의적 사고 능력과 책임 의식을 지켜 나갈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샘의 과세특 POINT ●

생성형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력 약화와 책임 의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였음. 장자의 기심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의 편리함에 사로잡힐 때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잃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함.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의존 문제를 단순히 기술 사용의 장단점에서만 보지 않고, 인간의 주체적 사고와 판단이 약화되는 문제로 해석한 점이 돋보였음.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세운 뒤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실천 방향을 제시하여,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 능력을 보여 줌. 나아가 장자의 사상을 현대 디지털 기술 문제에 적용하여 고전 사상의 현재적 의미를 설득력 있게 드러냄.

논술형 문제 04 주희와 왕수인의 관점에서 도덕적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하기

논술 Solution

갑은 주희이다.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여 앎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 충분한 앎을 바탕으로 바른 실천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을은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격물치지를 마음속 양지를 구체적인 일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알고 있는 바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

1 예시 답안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을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으로, 치지를 그러한 탐구를 통해 앎을 지극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주희에게 앎은 실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즉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도덕적 앎을 확충한 뒤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격물을 마음의 양지를 구체적인 사물과 일에서 실현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왕수인에게 앎은 실천과 분리되지 않으며, 마음속의 양지를 실제 행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곧 참된 앎이다. 정리하자면 주희는 앎을 먼저 밝힌 뒤 실천으로 나아가는 선지후행을 강조하였고, 왕수인은 앎과 실천이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2 예시 답안

왕수인의 관점에서 학생 A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옳다는 마음속 판단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앎을 실제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조언할 수 있다. 왕수인은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지가 있으며, 참된 앎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A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인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마음의 양지를 구체적인 일에서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옳은 판단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 더 받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 도덕적 앎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태도이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앎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두 사상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였음. 도덕적 앎이 도덕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왕수인의 관점에서 양지의 실천과 사육의 극복으로 분석함. 사상가의 이론을 실제 청소년의 생활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돋보였음.

활동형 문제 05 화쟁의 자세로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활동 Solution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사례를 선정하고, 서로 대립하는 입장의 핵심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 원효의 화쟁 사상에 따라 한쪽 입장만 옳다고 단정하기보다 각 입장의 타당한 점을 찾아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해결 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1 예시 답안

“학교 내 복장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는가?”

2 예시 답안

찬성	복장 규정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도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낼 자유가 있으며,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는 학생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
반대	복장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가 공동생활의 공간인 만큼 복장의 지나친 자율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키울 수 있고, 면학 분위기와 생활 지도의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예시 답안

원효의 화쟁 사상에 따르면 서로 대립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한 쪽만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보다, 각 입장 안에 담긴 타당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복장 규정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학생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반대로 복장 규정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학교 공동체의 질서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4 예시 답안

학교는 교복 착용 원칙을 유지하되,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외투와 생활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양말·운동화·가방 등 학교생활의 질서와 통일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항목은 학생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한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화쟁의 자세로 학교생활에서의 갈등 해결하기’ 활동에서 원효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학생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 공동체 질서의 확립이라는 두 입장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기본적인 복장 기준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하는 절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

활동형 문제 06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 계획 세우기

활동 Solution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습관을 선정하고, 그 습관을 고쳐야 하는 이유와 고치기 어려운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지능의 돈오점수 관점에 따라 잘못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1 예시 답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싶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학교와 학원에서 내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 또한 잠들기 전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늦게 자게 되고 이로 인해 다음 날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어서 이 습관을 반드시 고치고 싶다.

2 예시 답안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	☐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 당장의 즐거움이 더 커서 ☐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 기타: _____
----------------	---

3 예시 답안

실천 기간	2026. 9. 15. ~ 2026. 10. 15.
실천 목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실천 방법	1)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책상 위에 둔다. 2)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가방 안에 넣고 쉬는 시간에만 확인한다. 3) 스마트폰을 보고 싶을 때는 할 일을 먼저 끝낸 뒤 10분만 사용한다. 4)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단위로 기록하고, 전날보다 사용 시간이 줄었는지 스스로 점검한다.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심심해서 자주 손이 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짧게만 보려고 해도 영상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다 보면 사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공부할 때는 가방이나 서랍에 넣어 둔 것이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고,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점검하며 줄일 것이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 계획 세우기’ 활동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라는 자신의 생활 습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찰하였음.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를 당장의 즐거움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기간, 목표,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특히 지능의 돈 오점수 관점에 따라 깨달음 이후에도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하여 자기 관리 역량을 보여 줌.

활동형 문제 07 앓과 실천이 하나 되는 직업 생활에서의 행동 원칙 설계하기

활동 Solution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조사하고, 그 가치가 실제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정제두의 지행합일 관점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제 행동 원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동 원칙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예시 답안

희망 직업	기업인
사회적 가치	정직, 사회적 책임

2 예시 답안

사회적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례	분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A는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특수 분유를 꾸준히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특수 분유는 일반 분유보다 수요가 적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기업인 A는 당장의 이익만을 따지기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특수 분유 공급을 지속하였다.
내가 본받고 싶은 점	기업인 A가 기업의 수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소비자의 삶과 건강을 고려하여 책임 있게 행동한 점을 본받고 싶다. 특히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업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태도가 인상 깊었다. 또한 기업 활동이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3 예시 답안

1. 이익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
2. 사회에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책임 있게 제공하겠다.
3. 정직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겠다.
4.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5. 옳다고 판단한 가치를 실제 경영 활동에서 꾸준히 실천하겠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앓과 실천이 하나 되는 직업 생활에서의 행동 원칙 설계하기’ 활동에서 기업인에게 필요한 가치로 정직과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기업 활동의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음. 특수 분유를 생산하는 기업인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직업 생활에서 도덕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올바르게 이해함. 직업의 의미를 개인의 이익 실현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점이 인상 깊었음.

논술형 문제 08 감정을 다스리는 수양 방법 탐구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이황의 경(敬) 수양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은 마음이 욕심이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삼가고 깨어 있어, 본래의 도덕성을 보존하려는 수양의 자세이다.



(나)는 재희가 갈등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은 사례이다. 이를 경의 실천과 연결해, 감정을 절도 있게 다스리고 도덕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점을 파악해야 한다.

1 예시 답안

재희는 화가 난 감정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고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 상황을 살폈다. 이는 마음이 분노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르게 붙잡고, 깨어 있는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살핀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사정을 들은 뒤 차분히 책임에 대해 말한 것은 본성을 보존하고 감정을 절도에 맞게 표현한 것이므로 이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예시 답안

이황의 경은 마음이 욕심이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늘 삼가고 깨어 있는 수양의 자세이다. 경을 실천하려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바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정리한 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물어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경의 자세로 감정을 다스리면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더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이황의 경 사상을 바탕으로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음. 갈등 상황에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정리한 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덕적 성찰 능력과 관계 조정 능력이 돋보였음.

논술형 문제 09 이황과 정약용의 관점에서 덕의 형성 과정 탐구하기

논술 Solution

갑은 이황이다. 이황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한다고 보았으며, 덕이 인간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을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가 마음속에 덩어리처럼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덕적 실천을 한 뒤에 형성된다고 보았다.

1 예시 답안

갑은 이황, 을은 정약용이다. 이황은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단이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단은 인간에게 본래 내재한 도덕 본성이 드러난 것이며, 덕은 이미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인의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선하게 하며 예를 실천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행위를 한 뒤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덕은 처음부터 완성

된 채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2 예시 답안

나는 정약용의 입장에 동의한다. 사람은 선한 가능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의예지의 덕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해도, 실제로 노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온전한 덕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약용의 주장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며, 예를 실천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행동이 반복될 때 덕은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사단과 사덕에 대한 이황과 정약용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였음. 특히 넘어진 노인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마음과 실제로 돕는 행동을 구분하여, 덕이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도덕적 마음과 행위의 관계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돋보였음.

논술형 문제 10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장례 문화를 해석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소피스트로 대표되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옳고 그름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윤리적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소크라테스는 시대와 상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장례 풍습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의 시대와 상황에서는 옳게 여겨진 행위나 풍습이 현재의 윤리적 기준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 예시 답안

(가)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으로, 이 관점에서는 도덕 기준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며,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는 윤리적 보편주의의 입장으로, 이 관점에서는 모든 시대와 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2 예시 답안

나는 (가)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도덕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옳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문화도 미래에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의 장래 문화 역시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당시 공동체에서는 죽은 이를 기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독특한 장래 문화는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윤리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관점을 비교하는 활동에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함. 특히 도덕 기준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였음. 나아가 다양한 장래 문화를 사례로 제시된 자료와 연결하여, 특정 문화가 형성된 맥락과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자신의 입장을 선택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장래 풍습의 정당화 가능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며, 윤리적 관점 적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드러남.

활동형 문제 11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행복관을 비교하여 삶의 방향 선택하기

활동 Solution

갑(아리스토텔레스), 을(에피쿠로스), 병(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행복의 의미와 실현 방법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갑은 이성과 중용에 따른 덕의 실천을, 을은 욕망 절제와 고통의 부재를 통한 평온한 상태를, 병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 삶과 평정심을 강조한다. 한 입장을 선택하여 답안을 쓸 때에는 해당 사상의 핵심 개념(중용, 쾌락과 고통, 평정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예시 답안

구분	행복의 의미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방법
갑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성을 바탕으로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
을	정신적 쾌락의 충족과 고통의 부재	몸과 마음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욕구를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감
병	이성에 따른 삶에서의 평정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감

2 예시 답안

나는 병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평소 나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병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하루를 돌아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순간을 점검하고, 스스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실천을 지속한다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행복에 대한 다양한 윤리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 활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의 관점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함. 각 사상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의미와 실현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욕망 절제, 중용, 평정심 등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드러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윤리 이론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과 자기 성찰적 태도를 보임.

논술형 문제 12 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 비교하기

논술 Solution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그는 진리와 선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경험하고 탐구하며 선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을은 플라톤의 입장이다. 그는 진리와 선은 감각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영혼의 조화를 이룰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병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다. 그는 현실에서의 행복은 불완전하며 참된 행복과 완전한 선의 실현은 내세에서 신과 하나 됨으로써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신의 은총과 종교적 덕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1 예시 답안

갑은 선이 현실 세계의 사물 속에 존재하며, 인간이 이성을 바탕으로 경험하고 탐구하며 선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을은 선이 감각 세계가 아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므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은 완전한 선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예시 답안

을과 병은 공통적으로 완전한 선이 현실 세계를 넘어선 영역에 존재하며, 인간이 완전한 선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을은 선이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았고, 병은 완전한 선이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실현된다고 보았던 것처럼 두 사상이 모두 선을 인간의 경험과 분리된 초월적 기준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갑의 입장에서는 선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이성을 통해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을 현실과 분리하여 초월적 영역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을과 병을 비판할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핵심 개념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함.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의 대비, 현세적 행복과 내세적 행복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이성, 이데아, 자연법, 신의 은총 등의 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함.

논술형 문제 13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 이해하기

논술 Solution

(가)는 의무론의 입장으로,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하며,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나)는 공리주의의 입장으로,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옳다고 본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장기를 이용하여 다섯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응급 환자의 장기 적출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의 상황에서 의사는 뇌사 환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다섯 명의 환자를 살릴 것인지, 혹은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 적출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한다.

1 예시 답안

(가)의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을 중시하며, 어떤 행위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나)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위를 옳다고 본다.

2 예시 답안

의사는 장기 이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지, 아니면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사를 우선 존중하여 장기 이식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3 예시 답안

나는 (나)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생명과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의 권리와 의사를 침해하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생명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는 활동에서, 행위의 도덕성과 결과 중심 판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함. 특히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원칙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 상반된 윤리 이론을 활용해 동일한 상황을 다각도로 해석함.

활동형 문제 14 서양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진로 선택의 의미 탐구하기

활동 Solution

인간의 정해진 역할에 대해 실존주의 사상가들과 플라톤의 입장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1 예시 답안

A는 자신의 예술적 소질과 성향, 그리고 학교와 부모의 기대에 따라 예술 계열 진로를 선택해 온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조건에 맞는 역할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2 예시 답안

사상가	☐ 듀이 ☐ 제임스 ☐ 플라톤 ☒ 사르트르 ☐ 하이데거 ☐ 키르케고르
사상가의 입장	사르트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을 지니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예시 답안

인간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까지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기대나 과거의 판단에 얽매이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인간의 선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에서,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와 자아 형성의 갈등을 명확히 파악함.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인간의 자유와 선택, 책임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철학적 개념을 실제 삶의 문제에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과 자기 주도적 사고 태도를 보임.

활동형 문제 15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상 인터뷰 대본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로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문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요나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다.

1 예시 답안

기업에서 지원자 평가 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채점하는 경우 채점 시스템이 특정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반복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문제가 있다.

2 예시 답안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인간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채점 시스템과 같은 기술도 단순한 편의성이나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나 평가의 불공정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요나스는 만약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미래 사회에서도 왜곡된 평가 기준과 차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인간과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예시 답안

기자: 기업에서 인공지능 채점 시스템이 일부 지원자를 불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요나스: 이러한 문제는 기술 사용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인간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기술이 사용될 때에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요나스: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그 판단 기준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과정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기자: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요나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방치된다면, 현재의 편향된 평가 방식이 미래 사회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만점 공략! 원자샘의 과세특 POINT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식하고, 이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채점 시스템 같은 사례를 통해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적용하여 미래 세대와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 해결 방향을 제시함. 철학적 이론을 현실 문제에 연결하여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윤리적 판단 능력을 보임.

활동형 문제 16 내가 꿈꾸는 이상 사회에 대한 연설문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 사회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대안을 연설문의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를 도입부에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국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제안한 정책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사회 문제	빈부 격차와 취약 계층의 소외 문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빈부 격차와 취약 계층 소외 문제가 심해지면 계층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 통합이 어려워진다.

2 예시 답안

나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약 계층을 위한 연금,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로써 수혜자의 생애 주기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연금 체계를 구축하여 수혜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강화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질병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예시 답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어지는 빈부 격차와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벽이 높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우리 공동체의 통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상 사회는 단순히 부유한 사회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시민도 절망의 끝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한도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연금을 확대하여 노후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아픈 몸보다 병원비 걱정이 앞서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함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모두가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 서로가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 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내가 꿈꾸는 이상 사회에 대한 연설문 작성하기' 활동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 격차'와 '취약 계층의 소외'를 꼽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상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빈부 격차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임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이상 사회의 핵심 조건으로 설정하고, 호소력 있는 문장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냄.

활동형 문제 17 교실 내 시시 티브이(CCTV) 설치에 대한 신문 사설 작성하기

활동 Solution

교실 내 CCTV 설치를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작성한다. 두 관점의 차이가 사설의 논거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며, 각 입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설득력 있게 서술한다.

1 예시 답안

자유주의 관점	자유주의에서는 불간섭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화주의 관점	공화주의에서는 합당한 법의 간섭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실현을 막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폭력, 도난 등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바람직하다.

2 예시 답안

자신의 입장	교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교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으며, 자유롭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3 예시 답안

감시 카메라가 지켜보는 교실, 그곳에 '우리'는 있을까?
최근 학교 폭력이나 도난 등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교실 내 CCTV 설치의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머리 위에서 카메라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수조차 기록으로 남는다는 공포는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CCTV를 확인해 보자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삭막한 교실에서 진정한 소통과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여러 범죄나 안전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카메라의 감시를 피해 사각지대에서 더 교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CCTV의 차가운 렌즈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과 소통이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교실 내 시시 티브이(CCTV) 설치에 대한 신문 사설 작성하기' 활동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의 안전과 공익을 중시하는 공화주의적 관점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함.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나,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호 신뢰라는 시민적 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관심과 소통임을 강조함.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윤리적 관점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돋보임. 나아가 개인의 권리 보장과 공동체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상생 방안을 사설 형식에 맞춰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뛰어난 논술 역량을 발휘함.

활동형 문제 18 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직업 윤리 원칙 만들기

활동 Solution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명확히
서술하고 각 관점에서 강조하는 주요 가치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1 예시 답안

나의 희망 직업	의료계 종사자
개인선과 공동선이 갈등하는 상황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동선을 우선시하며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시민의 동선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강제 검사를 한다는 국가 정책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이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고, 개인선을 우선시하며 한 개인의 사생활 을 국가가 함부로 조화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도 있을 것 이다. 이 두 입장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2 예시 답안

☐ 자유주의(개인선) ☒ 공화주의(공동선)	
주장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종사자는 개별 환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도 중시해야 한다.
근거	특정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될 경우, 감염 병 확산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는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목적이라면 감염병 예방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3 예시 답안

	과학적 근거 기반의 원칙: 강제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조치가 왜 공동체에 필수적인지 시민들에 게 충분히 설명한다.
직업 윤리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경 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며 개인 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악자 우선 보호의 원칙: 방역 정책이나 의료 자원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취약 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공동선 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한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직업 윤리 원칙 만들기' 활동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희망하며 공중 보건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개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며, 강제적인 정책 집행에 앞서 시민과의 정확한 소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공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인권 존중과 공동체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숙한 직업관을 드러냄. 자신이 탐구한 갈등 상황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탁월한 문제 해결 역량이 돋보임.

논술형 문제 19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 바라보기

논술 Solution

(가)에서는 국가의 마스크 착용 강제 정책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시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공권력의 집행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 주며, 벌금형이나 체포와 같은 강제 조치가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나)는 벌린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다. 벌린에게는 소극적 자유,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벌린은 타인의 간섭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보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이 이 영역을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시킬 경우 이를 자유의 박탈이라고 보는 비판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1 예시 답안

국가가 공동체의 생명권 보호와 사회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제적 방역 정책을 시행하였다. 반면 시위대는 이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사회 전체의 보건의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공권력과 시위대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예시 답안

(나)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나)에 따르면 (가)에 드러난 정부 조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행동 영역을 강제로 축소한 행위이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위 주동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대응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억압한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고유한 자유 영역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나)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국가 방역 정책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갈등을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함. 벌린의 진정한 자유 개념을 문제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벌금 부과 및 현장 연행 등의 조치가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영역을 강제로 축소했음을 날카롭게 비판함.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공권력을 집행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간섭임을 논리적으로 평가함.

논술 Solution

(가)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새로운 노동 형태가 표면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성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분석한다.



(나)는 국가가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병폐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가) 문제를 분석한다.

1 예시 답안

현대 자본주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의 상품화를 극대화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 사업자로 규정하여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법과 사회 보장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2 예시 답안

(나)의 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방지하는 것은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따라서 국가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업 급여와 소득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더불어 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시장의 착취 구조를 견제하고 노동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단순히 취약 계층을 돕는 것을 넘어, 투자와 소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국가의 정당한 경제적 역할이다.

● 만점 공략! 완자쌤의 과세특 POINT ●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야기된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을 기사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스의 유효 수요 이론을 적용하여 논술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 성향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필수적인 정책적 과제임을 파악함. 자본의 효율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고용 안정과 소비 증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함.

